

서울시 THE DAILY NEWS REVIEW - 12

(2020년 3월 9일 월요일)

코로나19 대응 주요 소식

발행일 2020.3.9.

발행처 서울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발행인 최재필 · 김창보

홈페이지 www.scdc.or.kr · www.seoulhealth.kr

- 국내 '코로나19' 1,368명 추가 확진으로 총 7,134명, 서울시 지난 한 주 44명 추가 확진, 총 130명
- 이탈리아 하루에 1274명 추가 확진자에, 밀라노·베니스 봉쇄라는 초강수
- 서울수도 추경 나서... '메르스 8900억' 훨씬 넘어설듯
- 서울시의회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 의미 되살릴 기회...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원 필요”
-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 속출, 고령층·집단시설 '빨간불'
- 미국 코로나19 사망19·감염400명 급속 확산...뉴욕주도 비상사태

1. 발생 현황

코로나19 상황판

질병관리본부 '20.03.08. 00시 기준

	확진자	사망자	퇴원	의사환자**	검사중	결과음성	자가격리자	감시중	감시해제
서울시*	130	0	28	30,892	3,378	27,514	4,599	1,464	3,135
전국	7,134	50	130	181,384	19,376	162,008	-	-	-
전세계	98,173	3,536	-	-	-	-	-	-	-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코로나19 발생동향 '20.03.08. 18시 기준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서울시 현황

서울시 내부자료 기반 작성

작성자: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지원단 김연경 연구원 / ☎ 02-2276-8792 (unirtv@seoulmc.or.kr)

- 서울시 주말 사이 19명 추가 환자 발생, 총 130명 보고됨
 - 입원환자 102명, 격리해제 28명 / 질병관리본부 확진환자 120명
 - 국내 사망자는 50명으로 치명률은 0.7%으로 확인이 되었으나, 현재 기준 서울시 사망자 없음
 - 서울시 주말 신규 확진자 환자구성

계	확진자와 접촉 (타시도확진자 포함)	중국의 해외방문력	조사중
19	15	1 (이탈리아, 프랑스)	3

● 서울시 3월 1주 (3.1-3.8) 확진자 환자구성

계	확진자와 접촉 (타시도확진자 포함)	중국의 해외방문력	조사중	대구방문
44	37	2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홍콩)	3	2

- 지난주 발생한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접촉자인 사례 : 37 / 44(명)
- 감염경로가 접촉자인 확진자 중 관리 중이었던 사례 : 25 / 37(명)
- 관리 대상자 미포함 사유 (총 12명)
 - * 서울대 연구소 확진자의 접촉자 분류 중 미포함(타시도): 1명
 - * 강남구 소재 부동산 회사 내 확진자(#3616)의 접촉자 분류 중 미포함: 2명
 - * 강남구 소재 게임회사 내 확진자(타시도)의 접촉자 분류 중 미포함: 1명
 - * 그 외 타시도 확진자의 접촉자 (용인시, 고양시, 대구, 광주): 4명
 - * 동대문구 동안교회 확진자의 접촉자 : 2명
 - * 타시도 이관: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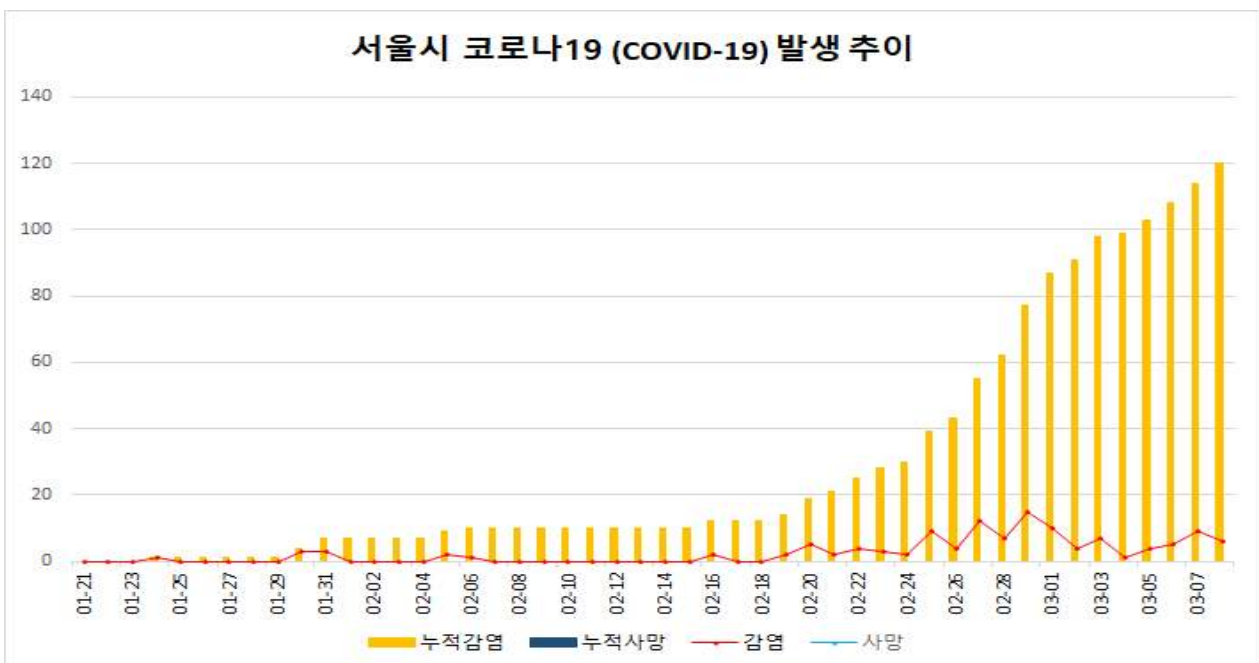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8. 16시 기준)

	구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자가격리현황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계	격리 중	격리 해제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계	감시중	감시 해제	진료	검체검사	X-ray
서울시	3.6.(금) 16시 기준	111	88	26	28,344	3,719	24,625	4,320	1,807	2,513	1,414	998	29
	3.7.(토) 16시 기준	119	92	28	29,808	3,381	26,427	4,471	1,623	2,848	1,278	821	16
	3.8.(일) 16시 기준	130	102	28	30,892	3,378	27,514	4,599	1,464	3,135	871	612	2
	증감	19	14	2	1,464	▼338	1,802	151	184	335	▼407 (28.8%)	▼386 (38.6%)	▼27 (93.1%)

출처: 서울시 코로나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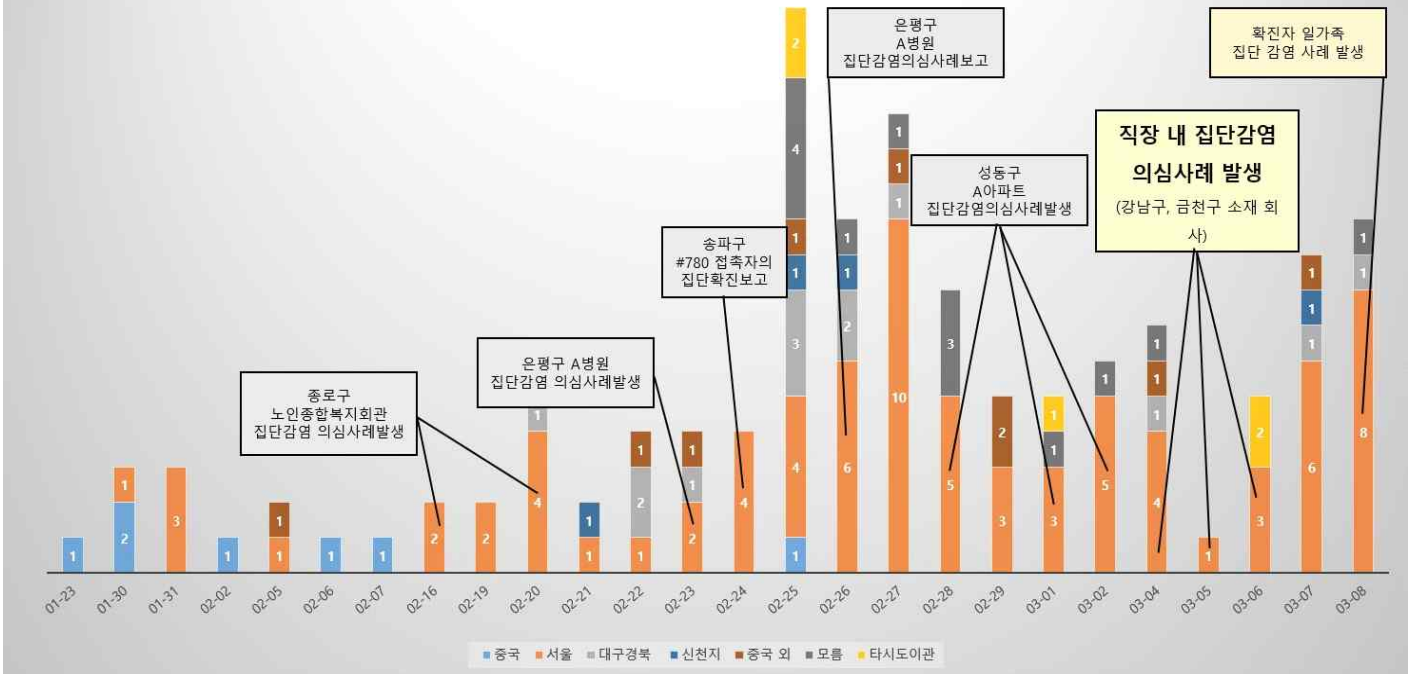
출처: 의료방역반 일일상황보고 (3.7. 18:00 기준)

● 서울시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2020.3.8.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발생 추이 (*질병관리본부 확진일기준)

서울시 유행곡선(1.23 - 3.8)



서울시 코로나19(COVID-19) 유행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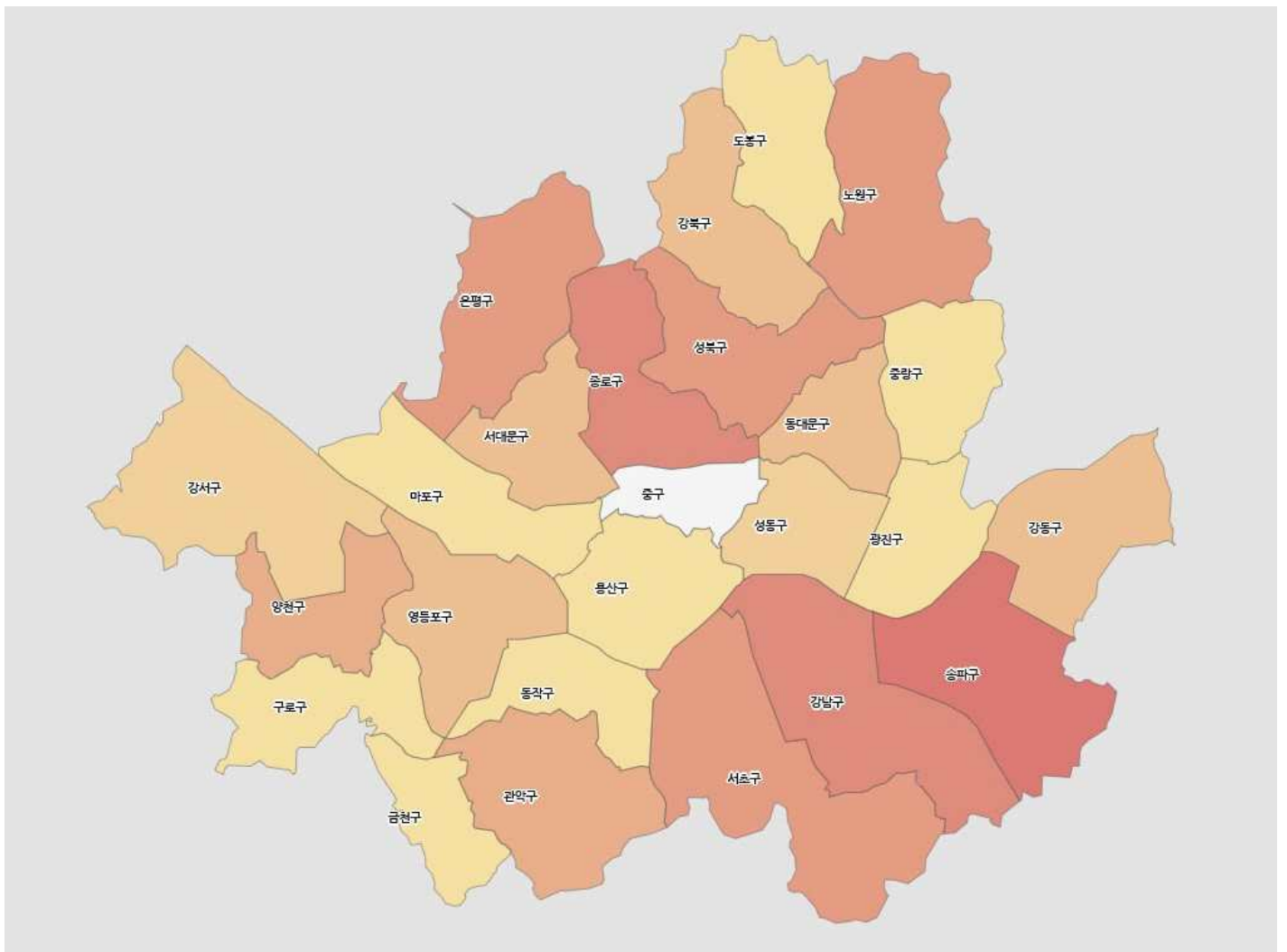
●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발생 현황

- 130명(송파12, 강남12, 종로11, 노원9, 은평8, 성북6, 서초6, 관악5, 양천5, 강동4, 서대문4, 영등포4, 동대문11, 강북4, 성동3, 강서3, 중랑2, 광진2, 동작1, 도봉1, 용산1, 마포1, 구로1, 금천1, 기타13(타시도 이관))
- 총 24개구에서 확진환자 발생함.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확진자 분포 현황

(단위: 명)

구분	송파	종로	강남	노원	은평	성북	서초	관악	양천	강동	서대문	영등포	동대문	강북	성동	중랑	강서	광진	동작	도봉	용산	마포	구로	금천	중구	기타	계
확진 환자	12	11	12	9	8	6	6	5	5	4	4	4	11	4	3	2	3	2	1	1	1	1	1	1	-	13	130
	-	-	1	1	1	1	1	1	3	-	-	-	7	-	-	-	-	-	-	-	-	-	-	-	-	3	19



서울시 자치구별 확진자 분포

● 서울시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2020.3.8. 18:00 기준)

(단위 : 건)

합계	자치구				의료기관				
	소계	보건소내	임시 선별진료소 및 상담소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소계	국가 지정	지역 거점	국공립 병원	민간병원
80	42	32	6	4 ¹⁾	38	5	6	6 ²⁾	21

- 1) 차량이동 선별진료소 설치 : 은평병원, 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3.3.), 이대서울병원(3.5.)
 2) 국공립병원 선별진료소 설치(1개소) : 경찰병원

●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정 현황 (2020.3.8. 18:00 기준)

(단위: 개소)

자치구 선별진료소			※ 코로나19 상담소 5개소 중구, 광진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합 계	보건소 내	보건소 외	
33	32*	1	

* 25개구 중 성북·금천·노원·은평·중랑·강북구 2개 운영 그 외 자치구 1개 운영, 변동사항 : 송파구 내 선별진료소 2개 → 1개

● 자치구 보건소 운영 현황(2020.3.7. 18:00 기준)

(단위 : 건)

날짜	진료		검체		X-ray	
	금일	누 계	금일	누 계	금일	누 계
2020.3.7.	871	35,090	612	19,086	2	941

● 의료기관 운영 현황(2020.3.5. 18:00 기준)

(단위 : 건)

구 분	진료		검체 검사		비고
	금일	누계	금일	누계	
계	1,727	27,092	676	10,436	
국가지정	90	4,574	90	2,140	
지역거점	290	4,442	221	2,230	
국공립병원	142	1,771	40	1,307	
민간병원	1,205	16,305	325	4,759	

* 국공립병원의 어린이병원, 은평병원은 3.3부터 차량이동선별진료소로 변경, 북부병원은 2.29부터 미운영

● 국내 확진환자 발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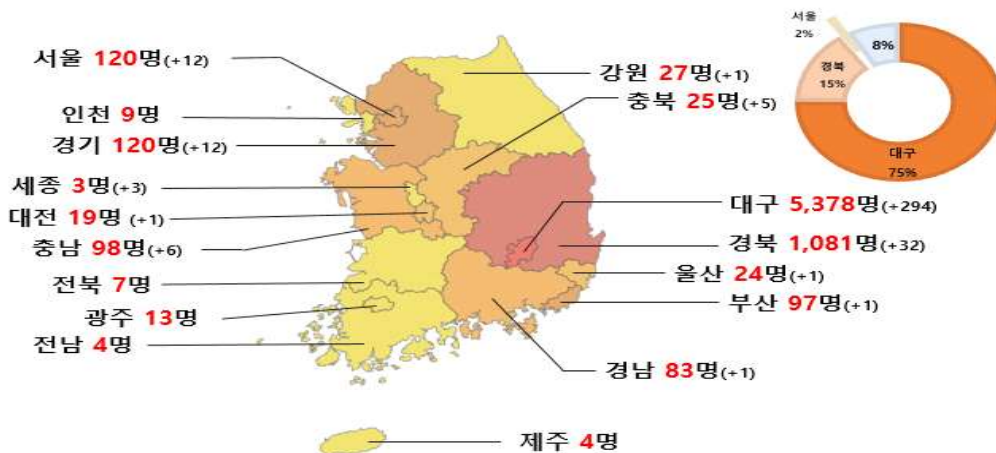
- 국내 확진자는 7,134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367명 추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는 50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6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70%으로 확인됨.
- 전국적으로 **약 79.4%는 집단발생(cluster)과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및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20.6%임.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 (2020.3.8. 00:00 기준) (출처) 질병관리본부

구분	총계	확진환자현황				검사현황		
		계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계	검사 중	결과 음성
3.7.(토) 0시 기준	178,189	6,767	118	6,605	44	171,422	19,620	151,802
3.8.(일) 0시 기준	188,518	7,134	130	6,954	50	181,384	19,376	162,008
증감	10,329 (5.5%)	367 (5.1%)	12 (9.2%)	349 (5.0%)	6 (12.0%)	9,962 (5.5%)	▼244 (▼1.3%)	10,206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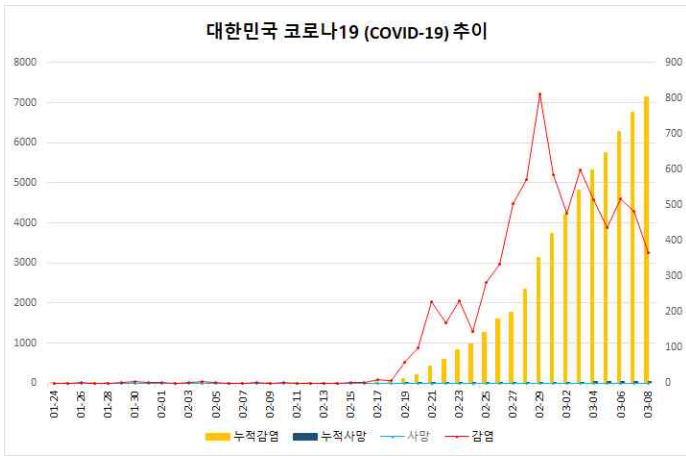
- 새롭게 확진된 환자 367명의 현황

지역	확진환자			주요 기타 유행
	누계(명)	신규(명)	(%)	
서울	120	(+12)	1.7	직장내 집단발생(10명), 관악구 S대 연구소(3명), 성동구아파트(13명), 신천지(2명) 관련 등
부산	97	(+1)	1.4	온천교회(34명), 신천지(11명), 수영구 유치원(6명), 해운대구 성당(6명), 부산진구 학원(4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대구	5,378	(+294)	75.2	신천지(3,882명), 확진자접촉자(534명), 대남병원(2명) 관련 등
인천	9	-	0.1	신천지(2명),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광주	13	-	0.2	신천지(8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대전	19	(+1)	0.3	확진자 접촉자(8명), 신천지(2명) 관련 등
울산	24	(+1)	0.3	신천지(12명) 관련 등
세종	3	(+1)	0.0	운동시설(2명), 신천지(1명) 관련 등
경기	142	(+12)	2.0	신천지(22명), 수원생명생교회(10명), 분당제생병원(11명), 기존 해외유입(6명) 관련 등
강원	27	(+1)	0.4	신천지(15명) 관련 등
충북	25	(+5)	0.4	신천지(7명), 과산군 경로당(6명), 확진자 접촉자(1명) 관련 등
충남	98	(+6)	1.4	천안시 운동시설(92명) 관련 등
전북	7	-	0.1	확진자 접촉자(2명), 기존 해외유입(1명), 신천지(1명) 관련 등
전남	4	-	0.1	신천지(1명), 기존 해외유입(1명) 관련 등
경북	1,081	(+32)	15.1	신천지(485명), 청도 대남병원(118명), 봉화푸른요양원(51명), 성지순례(49명), 칠곡 밀알 사랑의집(24명), 경산 제일실버타운(17명) 관련 등
경남	83	(+1)	1.2	신천지(29명), 거창교회(10명), 한마음장원병원(7명), 창녕동전노래방(7명), 부산온천교회(2명) 관련 등
제주	4	-	0.1	-
총계	7,134	(+367)	100.0	전국 환자 중 신천지 관련 4,482명(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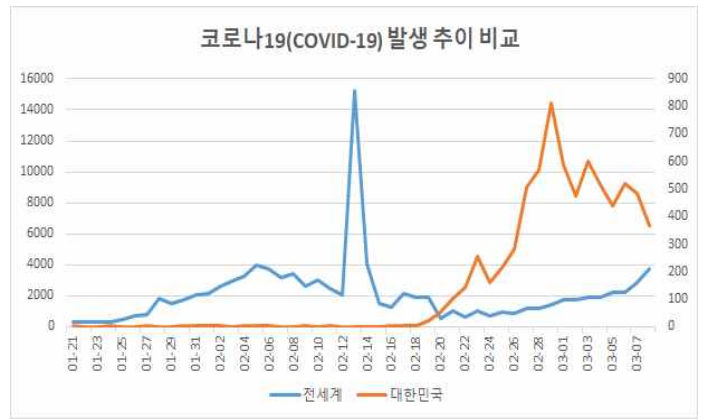


국내 확진자 분포 현황

- 국내 확진환자 일별 발생 현황 (2020.3.8.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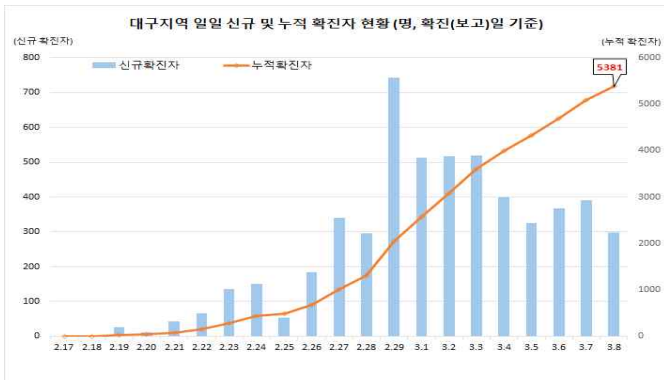
국내 코로나19 추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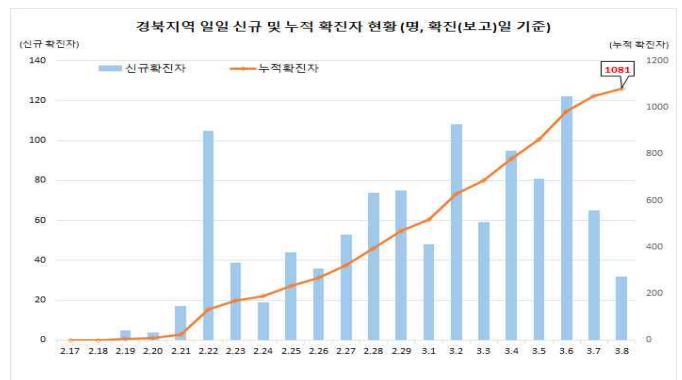
코로나19 발생 추이 비교

- * 금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총 7,13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최근 증가세가 다소 완만해지는 양상을 보임.
- * 일별 신규 확진환자 수는 지난달 29일 이후 차츰 줄어들고 있음.

- 대구·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2020.3.8. 00: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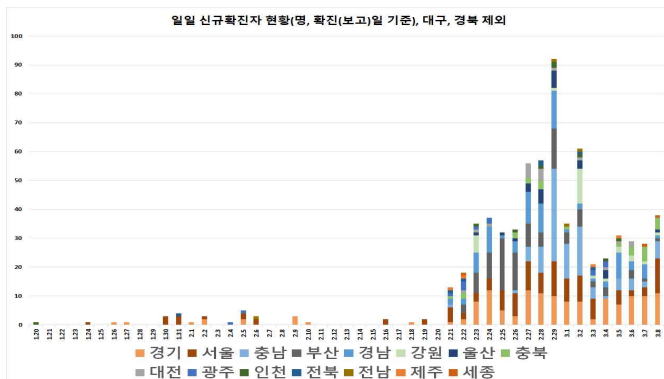
대구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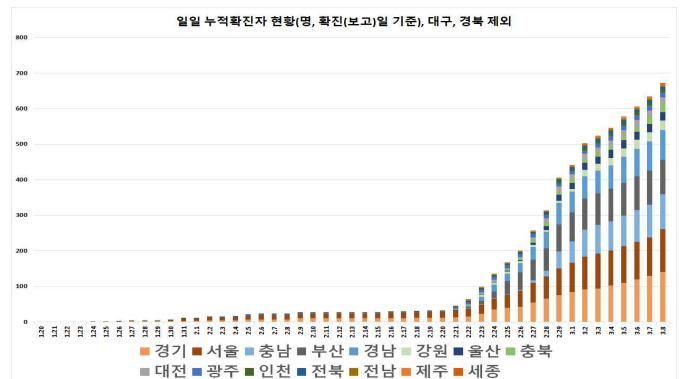
경북지역 일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신천지 신도의 진단검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일반 대구시민 중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서 확진자 발생 현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신천지 신도에 의한 지역사회 2-3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감염이 뚜렷하게 감소하도록 한층 더 노력하고 방역 관리 강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일별/누적 확진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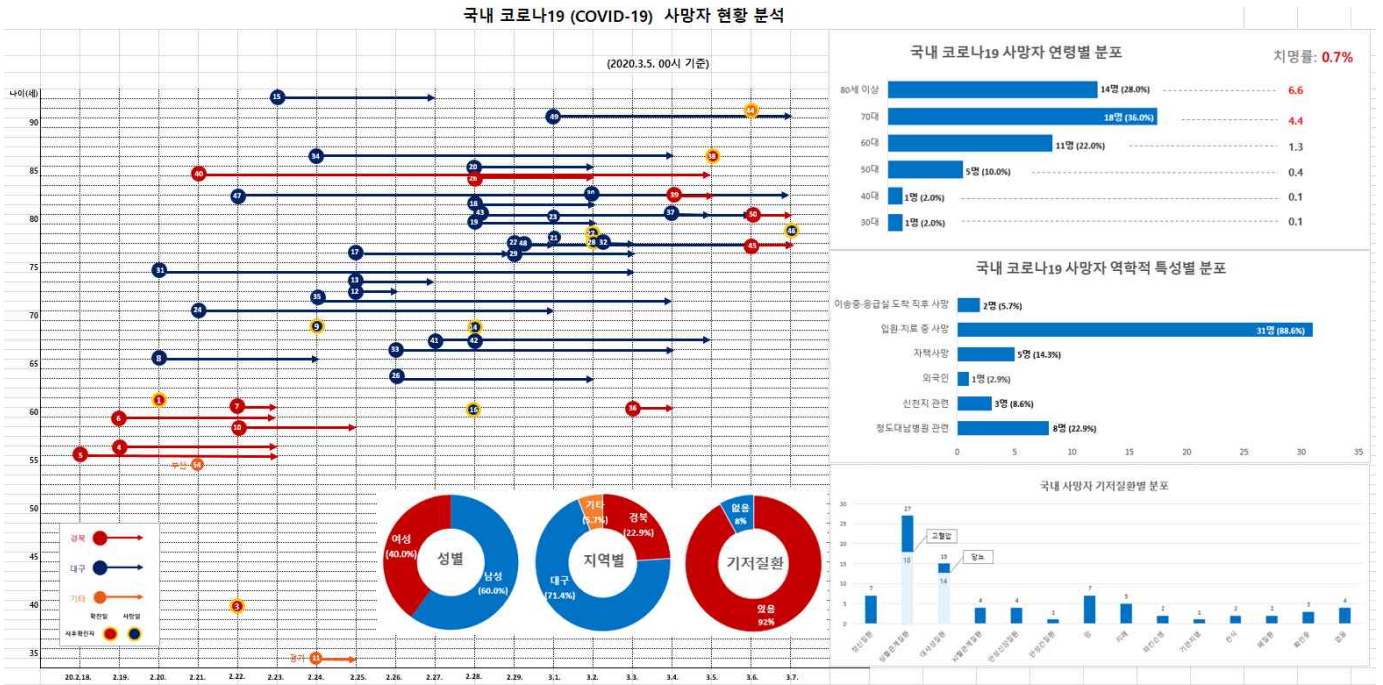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신규 확진자 현황



대구·경북지역 제외한 일일 누적 확진자 현황

- * 대구·경북지역을 제외한 국내 확진자 현황에 따르면, 경기·서울·충남·부산·경남 등 지역별 집단발생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임 (지역별 주요 기타 유행사례 참고).
- *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중심으로 집단발생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해당 시설 기관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및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함.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현황 (2020.3.8. 00:00 기준)



- * 국내 사망자는 **60세 이상이 86.0%**를 차지하며, 사망자들은 확진일로부터 **평균 4일 뒤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 국내 사망자는 50명(전일 00시 기준 대비 6명 추가)으로 **치명률은 0.70%**로 보고되었으며, 3.4.부터 현재까지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4명으로** 확인됨.

✓ **성별·지역별 분포 현황**

- * 성별로는 **남성이 30명(85.7%)**으로 여성 20명(57.1%)보다 많았고, 사망자는 **대구 35명(70.0%), 경북 12명(24.0%)**으로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기타 3명(6.0%)은 각각 부산, 경기, 강원지역에서 발생함.
(※ 경북 봉화 해성병원에 위암말기로 입원중이던 환자가 3.4. 사망 후 3.6. 사후 확진 판정으로 강원도 사망자 통계 추가)

✓ **연령별 분포 현황**

- * 연령대는 **70대에서 18명(36.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80세 이상 14명(28.0%), 60대 11명(22.0%), 50대 5명(10.0%), 40대 및 30대 각각 1명(2.0%)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치명률은 212명의 확진자 중 14명이 숨진 80세 이상이 6.6%, 70대가 4.4%로, 여전히 7080 고령층에서 높은 치명률을 보임.

✓ **기저질환별 분포 현황**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50명 중 **92%**가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심혈관계질환이 27명(54.0%), 그 중 고혈압이 18명(3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대사성질환 15명(30.0%), 정신질환 및 암 각각 7명(14.0%), 치매 5명(10.0%)** 순으로 확인됨 (기저질환 중복 반영됨).
- * 3.4.부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4명으로** 보고되었으며,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 모두 65세 이상의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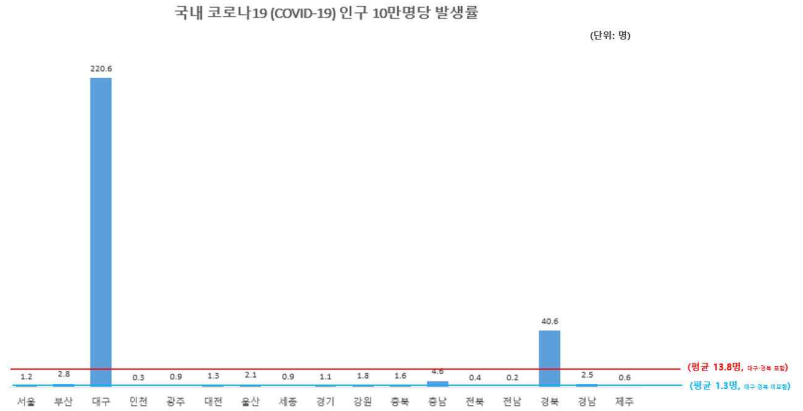
✓ **사망관련 역학적 특성**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의 역학적 관계로 보면 초기 사망자의 경우 **청도대남병원 및 신천지대구교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3.8. 00시 기준으로 입원·치료 중 사망 관련 **31명(88.6%), 청도대남병원 관련 8명(22.9%), 자택사망 5명(14.3%), 신천지 관련 3명(8.6%)** 순으로 나타남.
(※ 입원·치료 중 사망 관련 환자들 중 38번째 사망자는 경북 청도군립요양병원 관련, 44번째 사망자는 경북 봉화해성병원 관련)
- *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는 4명으로** 집계된 바 있음. 해외에서도 이탈리아 61세 사망자 및 중국의 경우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 사망률이 1.4%로 보고되었음.
- * 다만, 기저질환이 없는 대다수의 사망자는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타나며, 고령일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

- 국내 코로나19 인구비례 확진자수 (2020.3.8. 00:00 기준)

NO.	지역	사망자	치명률	발생률
1	대구	35	0.65	220.6
2	경북	12	1.11	40.6
3	충남	-	-	4.6
4	부산	1	1.03	2.8
5	경남	-	-	2.5
6	울산	-	-	2.1
7	강원	1	3.70	1.8
..
10	서울	-	-	1.2
11	경기	1	0.70	1.1

*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국내 코로나19 인구 10만명당 확진환자 수

● 코로나19 신천지 전수조사 현황 (2020.3.8.기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8.)

전국	신천지 교인	309,726명	
	조사대상자*	195,612명	
	전수조사(유선)	192,634명	98.7% 완료
	확진 판정	4,482	62.8% (전국 확진자 대비 확진률)
대구	신천지 교인	10,914명	
	전수조사(유선)	-	약 95% 이상 완료
	진단검사	9,464명	약 90% 완료
	확진 판정	3,882명	41.0% (검체검사 대비 확진률)
경북	신천지 교인**	6,549명	
	전수조사(유선)	6,492명	99.1% 완료 (교인 100%, 교육생 95.5%)
	진단검사	5,645명	87.0% 완료
	확진 판정	465명	8.2% (검체검사 대비 확진률)

* 조사대상자: 미성년자(16,680명), 교육생(65,127명), 주소 지불명(863명), 해외신도(31,894명) 제외 (단, 지자체별 교육생 포함된 지자체도 있음)

** 신천지 교인(6,549명): 일반신도(5,269명)+예비신도(1,280명)으로 보고됨.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3.8.)

(출처) 대구광역시 정례브리핑[21보] 2020.3.6.(금) 10:30

(출처) 20.3.7.(토)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대구지역의 확진자 증가폭 및 신천지 신도 양성률은 점차 감소추세이나 이는 중심 증폭집단의 모수 자체가 한정되어 있어 한정된 모수에서 확진자를 찾아낸 것으로 증폭률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이 집단에서 또 다른 증폭 집단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신천지에 의한 지역사회에 2-3차 전파 유행을 일으킬 수 있는 시기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코로나19 주요 이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3일 기준 경북 누적 확진자 중 경산시 차지 비율이 약 40%로, 대구·경북에 이어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함.
- ✓ (대구)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마음아파트 확진자(46명) 발생 (출처) [0307 코로나-19 대응 관련 대구시 정례브리핑\(22보\)](#)
 - 대구시 종합복지회관내 위치, 대구시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35세 이하 미혼여성 근로자 입주가능한 대구시 소유, 100세대 규모의 임대 아파트로 현재 142명으로 입주하고 있음.
 - 대구시 코로나19 확진자 거주지 분포도 분석 중, 해당 아파트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심층조사를 실시함.
 - 3.7. 기준 입주자 142명 중 94명(66.19%)이 신천지 교인 확인, 이 중 46명 코로나19 확진 판정됨.
 - 3.5. 기준 입주자 전원 코호트 격리 조치, 자가격리 기간 연장 통보 및 검체 검사 실시함.
- ✓ (경북) 경산 제일실버타운 확진자(17명) 발생 (출처) [20.3.7.\(토\)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경산 소재 제일실버타운 내 55명 근무·입소하고 있음(입소자 17, 주간보호이용자 16, 종사자 22).
 - 3.7. 기준 시설 내 17명 확진 판정됨(입소자 9, 주간보호이용자 4, 종사자 4명).
 - 3.5. 기준 실버타운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 검체 검사 실시함.
- ✓ (경북) 청도 군립 노인요양병원 확진자(3명, 사망자 1명 포함) 발생 (출처) [20.3.7.\(토\)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경북 소재 청도 군립요양병원(대남병원 3층) 내 확진자 3명(사망 1, 입소자 1, 종사자 1) 발생함.
 - 이 요양병원은 청도대남병원에서 집단감염이 확진된 지난달 19일 이후 건물 전체가 폐쇄되었고, 안에 있던 환자 및 의료진 등 90여명이 코호트 격리 된 상태였음.
 - 격리해제 하루 앞둔 3.4. 입원중이던 80대 환자가 폐렴 증세로 사망·사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후 2명(입소자 1, 종사자 1)이 양성 판정 확인됨.
 - 3.6. 기준 병원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 음성판정을 받은 나머지 환자 및 의료진에 대하여 다시 검체 검사 실시중임.
- ✓ (경북) 봉화 해성병원 사후 확진 판정받은 사망자(1명) 발생 (출처) [20.3.7.\(토\)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경북 봉화 해성병원 내 위암말기로 입원 중이던 환자가 3.4. 사망 후 3.6. 사후 확진 판정 받음 (사망자 통계는 강원도로 잡힘).
 - 봉화 푸른요양원 입소자들의 확진 검사 결과 전 강원도 태백시 이동되어 봉화 해성병원에서 검체 채취 못함(태백보건소 검체 채취).
 - 밀접접촉자인 유가족 2명, 장례지도사 2명, 운구자 1명 음성판정 확인, 장례식장(태백병원 장례식장, 태백공원묘화장장) 방역 조치 완료함.
- ✓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 확진자(51명, 사망자 1명 포함) 발생 (출처) [20.3.7.\(토\)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경북 봉화 춘양면 소재 푸른요양원내 117명 근무·입소하고 있음(입소자 56, 종사자 61).
 - 3.7. 기준 시설 내 총 51명 확진 판정됨(3.4. 4명 → 3.5. 45명 추가 → 3.6. 2명 추가, 총 51명)
 -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8세 환자가 3.6. 김천의료원으로 이송·치료 중 폐렴으로 3.7. 사망 보고됨.
 - 푸른요양원 입소자들이 해성병원 입원중 확인 판정 받음에 따라 3.4. 응급실 포함 병원 전체 폐쇄, 입원환자 및 의료진 대상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 검체 검사 실시중임.
- ✓ (경북) 경산 행복요양원 확진자(8명) 및 검사 완료 (출처) [20.3.7.\(토\) 코로나19 대응 경상북도 정례브리핑자료](#)
 - 경산 소재 행복요양원 내 53명이 근무·입소하고 있음(입소자 28, 종사자 19, 주간보호이용자 6).
 - 3.7. 기준 시설 내 확진자 총 8명 확진 판정됨(3.4. 1명 → 3.5. 7명 추가, 총 8명)
 - 시설 전체 코호트 격리 조치, 전원 검체 검사 실시한 결과 이후 확진자 추가 발생하지 않음.

● 전 세계 발생 현황

- 3,896명의 추가 환자 보고되어 106,198명(전일 대비 3.81% 증가)으로 보고됨.
- 이 중 3,569명(72명 추가) 사망하여 치명률은 3.36%로 확인됨.
- 발생국가 및 지역 96개에서 103개(*리버아누켓(이집트 크루즈), 그랜드프린세스(미국 크루즈), 몰타, 불가리아, 몰디브, 몰도바, 파라과이)로 증가됨.

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8. 14:00) (출처) 위키피디아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NO.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사망자
1	중국	80,696	3,097	36	팔레스타인	22		71	몰타	3	0
2	한국	7,134	50	37	그랜드 프린세스	21	0	72	북마케도니아	3	0
3	이탈리아	5,883	233	38	체코	21	0	73	슬로바키아	3	0
4	이란	5,823	145	39	베트남	21	0	74	불가리아	2	0
5	프랑스	949	11	40	포르투갈	20	0	75	도미니카공화국	2	0
6	독일	800	0	41	알제리	19	0	76	룩셈부르크	2	0
7	스페인	525	10	42	브라질	19	0	77	몰디브	2	0
8	일본	461	6	43	핀란드	19	0	78	모로코	2	0
9	미국	439	19	44	아일랜드	18	0	79	남아프리카공화국	2	0
10	스위스	268	1	45	러시아	17	0	80	캄보디아	2	0
11	영국	209	2	46	오만	16	0	81	안도라	1	0
12	네덜란드	188	1	47	이집트	15	0	82	아르메니아	1	0
13	벨기에	169	0	48	에콰도르	13	0	83	부탄	1	0
14	스웨덴	161	0	49	크로아티아	12	0	84	카메룬	1	0
15	노르웨이	156	0	50	조지아	12	0	85	콜롬비아	1	0
16	싱가포르	138	0	51	슬로베니아	12	0	86	코스타리카	1	0
17	홍콩	109	2	52	카타르	12	0	87	요르단	1	0
18	말레이시아	93	0	53	루마니아	12	0	88	라트비아	1	0
19	바레인	85	0	54	에스토니아	10	0	89	리히텐슈타인	1	0
20	오스트리아	81	0	55	마카오	10	0	90	리투아니아	1	0
21	호주	74	3	56	아제르바이잔	9	0	91	몰도바	1	0
22	그리스	66	0	57	아르헨티나	9	1	92	모나코	1	0
23	쿠웨이트	61	0	58	사우디아라비아	7	0	93	나이지리아	1	0
24	이라크	54	4	59	칠레	7	0	94	파라과이	1	0
25	캐나다	54	0	60	필리핀	6	1	95	페루	1	0
26	태국	50	1	61	벨라루스	6	0	96	세르비아	1	0
27	아이슬란드	50	0	62	폴란드	6	0	97	토고	1	0
28	대만	45	1	63	멕시코	6	0	98	튀니지	1	0
29	리버 아누켓	45	0	64	파키스탄	6	0	99	우크라이나	1	0
30	아랍에미리트	45	0	65	헝가리	5	0	100	바티칸시국	1	0
31	인도	34	0	66	뉴질랜드	5	0	101	네팔	1	0
32	덴마크	29	0	67	아프가니스탄	4	0	102	스리랑카	1	0
33	레바논	28	0	68	인도네시아	4	0	103	일본 크루즈	696	7
34	이스라엘	25	0	69	세네갈	4	0	합계		106,198	3,569
35	산마리노	23	1	7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3	0			치명률 3.37%	

No.	국가 및 지역	사망자 수	치명률	발생율
1	이라크	4	7.41	0.14
2	미국	19	4.74	0.12
3	이탈리아	233	3.96	9.74
4	중국	3,070	3.81	5.79
5	호주	2	3.17	0.25
6	이란	145	2.49	7.12
7	스페인	10	1.95	1.10
8	프랑스	16	1.69	1.42
9	일본	6	1.30	0.36
10	한국	50	0.70	13.82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8. 14:00 기준)

(출처) 위키피디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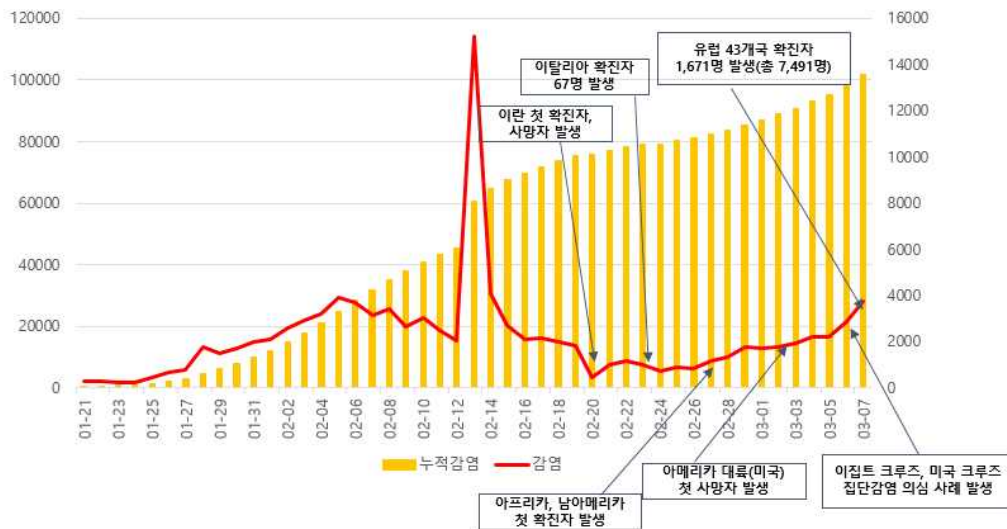
국가 및 지역	확진자 수	사망자 수	치명률	발생율
전 세계	101,927	3,486	3.42	1.31
중국	80,813	3,073	3.80	5.62
중국 외 국가	21,110	413	1.96	0.33
서태평양	7,478	53	0.71	
유럽	7,495	214	2.86	
동남아시아	84	1	1.19	
중동	5,029	128	2.55	
아메리카	219	11	5.02	
아프리카	26	0	0	

치명률=사망자수/확진자수*100,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10만

전 세계 코로나19 치명률 현황 (2020. 3. 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전 세계 코로나19 (COVID-19) 추이



전 세계 코로나19 추이 현황 (2020. 3. 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첫 발병 66일만에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10만명 넘어

- * 7일 오전 WHO 발표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음.
- * WHO는 최근까지 코로나19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수함.
- * 세계 인구의 2/3가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WHO 생물학자, 아이라 롱기니 박사)하기도 했으며, 전 세계 인구의 40~70%가 감염 될 수 있다고 말했음(하버드대 역학학자 마크 립시치).
- *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중국 밖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가 19일 마다 10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함. (출처) SCMP
- * '지금 이 대유행 단계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 WHO가 왜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고 미네소타대학 감염병연구정책센터의 마이클 오스터홀 소장은 말함.



코로나19 확산 현황 (출처) [2019-nCoV Global Cases \(by Johns Hopkins CSSE\)](#)

✓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 호에서 무더기 확진자 발생

- * 지난 달 11~21일 멕시코 여정에 참여했던 여행객 중 3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그 중 기저질환이 있던 71세 남성 사망함.
- * 같이 여정에 참여했던 9명(캘리포니아 주민 7명, 캐나다인 2명)도 확진자 판정 받음.
- * 크루즈선 승객과 승무원 45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여 21명(승무원 19명, 승객 2명)이 확진 판정받음.
- * 3,533명(승객 2,422명, 승무원 1,111명) 탑승 중임. 모든 승객과 승무원이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임.
- * 지난 달 11~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멕시코를 다녀오는 일정을 마친 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출발했다가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제기되어 귀항함.
- * 일본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와 같은 선사인 프린세스 크루즈가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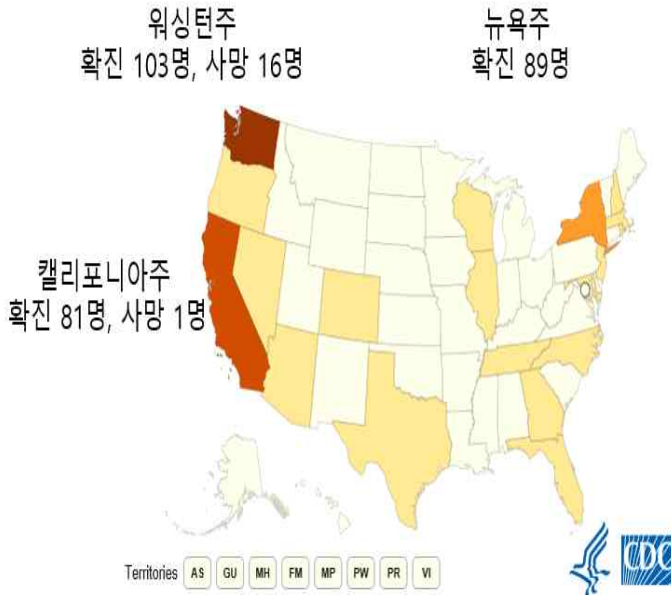
✓ ‘리버 아누켓’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가능성 보여

- * 이집트 남부 아스완과 룩소르를 오가는 나일강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 45명 발생함.
- * 지난 1월말에 탑승하여 2월 1일에 내린 대만계 미국인 여성 관광객이 대만으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전수 검사를 실시함.
- * 171명(이집트인 70명, 외국인 101명)이 탑승 중임.
- * 승객과 승무원 등의 격리 여부를 두고 보도가 엇갈림. 6일에 승무원 12명이 양성 판정을 보였음. 이 가운데 11명은 재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음.
- *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승무원들도 2주간 격리조치를 할 계획임.
- * 2월 내내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싣고 운항하다 지난 5일에 운항 중지함.

● **중국 외 국가별 발생 현황** (2020. 3. 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확진환자 21,110명(전일 대비 3,629명 추가, 20.8% 증가)으로 보고됨.
- 사망자 413명(전일 대비 78명 추가)로 보고되어, 중국 외 국가의 치명률은 1.96%(전일 1.92%)확인됨.

✓ **미국 - 확진자 440명 이상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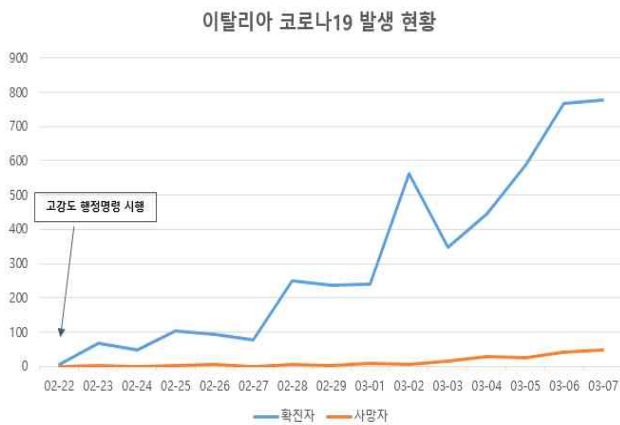


미국의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CDC](#)

- * 32개 주로 먼저 급속도로 확산하는 양상임.
- * 뉴욕주 확진자 89명으로 보고되어 비상사태 선포함.
- * 뉴욕주 두 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 변호사가 주요 전파자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짐(44명 의무 격리, 2,700명 예방 차원의 격리 중). 1,000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격리 조치를 취한 상태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음.
- * 워싱턴 D.C의 첫 확진자는 40대 남성으로 감염지역 여행, 확진자와의 접촉이 없어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의심됨.
- * 미국내 원주민인 워싱턴주는 확진자 103명, 사망자 16명으로 보고됨. 이 중 14명은 커클랜드의 요양원과 연관되어 있음.
- * 식품의약품(FDA)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10만개의 진단 장비를 9일까지 민간연구실에 공급할 예정임.
- * 샌프란시스코에 정박한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에서 21명의 확진자 발생함. 3,533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 진행중임. (출처) [CNN](#)

✓ **이탈리아 - 하루에 1,247명 확진자 발생, 밀라노와 베네치아 봉쇄, 1,600만명 격리**

- * 확진자 5,883명(전일대비 1,247명 상승), 사망자 233명 발생함.
- * 14개 지역(롬바르디아주 전역, 베네토, 피에몬테주 등)을 '레드존'으로 추가 지정하고 봉쇄령 내림.
- * 확진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국 가운데 유럽 내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 절반인 5개국임.
- *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중국과의 항공편을 차단했다, 그럼에도 이처럼 바이러스가 퍼진 것에 놀랐고, 이는 전 세계가 위협하다는 것이라는 경고 함(이탈리아 밀라노대학 전염병 전문가 마시모 갈리 교수).
- * EU회원국 보건장관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체코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마스크, 장갑 등의 수출을 제한하자 다른 회원국들이 반발하여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이탈리아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WHO Situation Report](#)



중국 외 국가별 코로나19 발생현황 (2020. 3. 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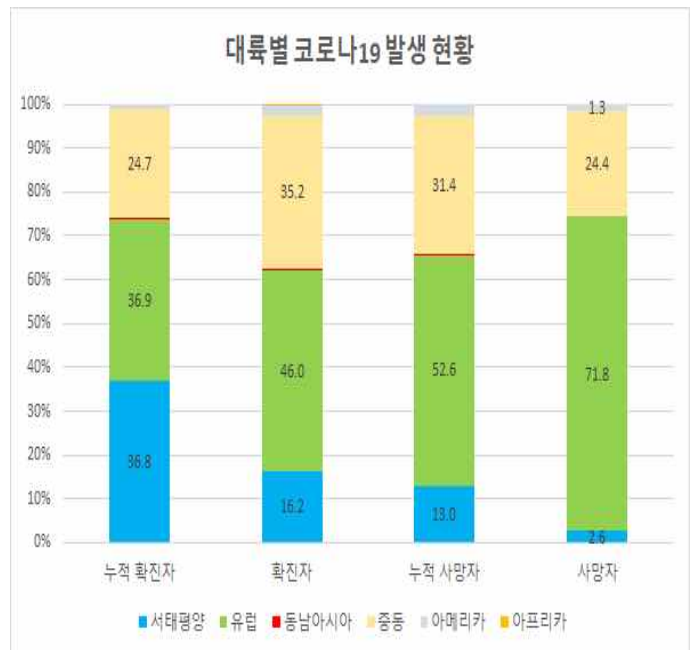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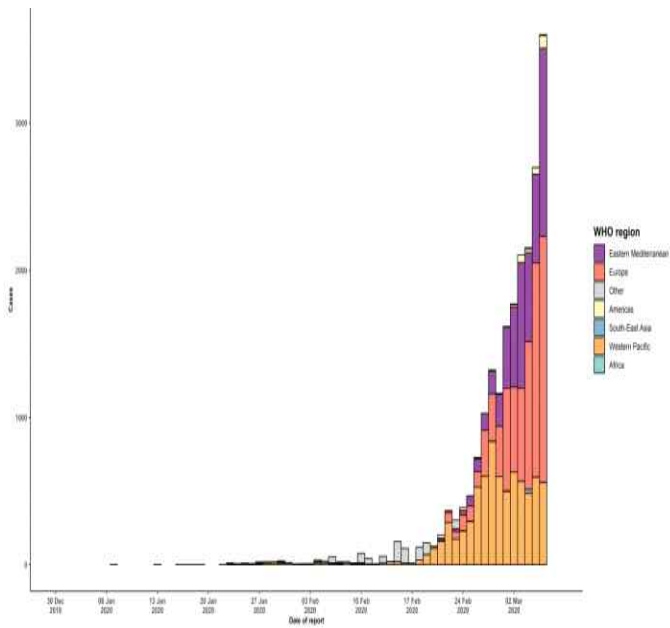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서태평양						
한국	6,767	483	44	2	*지역 전파	0
일본	408	59	6	0	*지역 전파	0
싱가포르	130	13	0	0	*지역 전파	0
말레이시아	83	28	0	0	*지역 전파	1
호주	62	5	2	0	*지역 전파	0
베트남	17	1	0	0	*지역 전파	0
뉴질랜드	5	1	0	0	*지역 전파	0
필리핀	5	0	1	0	*지역 전파	1
캄보디아	1	0	0	0	해외 유입	39
유럽						
이탈리아	4,636	778	197	49	*지역 전파	0
독일	639	106	0	0	*지역 전파	0
프랑스	613	193	9	3	*지역 전파	0
스페인	374	117	5	2	*지역 전파	0
스위스	209	123	1	0	*지역 전파	0
영국	167	49	1	1	*지역 전파	0
스웨덴	137	76	0	0	*지역 전파	0
네덜란드	128	46	1	1	*지역 전파	0
노르웨이	116	27	0	0	*지역 전파	0
벨기에	109	59	0	0	*지역 전파	0
오스트리아	66	19	0	0	해외 유입	0
아이슬란드	45	19	0	0	*지역 전파	0
그리스	32	0	0	0	*지역 전파	2
산마리노	24	3	0	0	*지역 전파	0
덴마크	23	5	0	0	*지역 전파	0
핀란드	19	7	0	0	*지역 전파	0
이스라엘	19	4	0	0	*지역 전파	0
아일랜드	18	4	0	0	*지역 전파	0
포르투갈	13	4	0	0	*지역 전파	0
체코	12	0	0	0	*지역 전파	1
크로아티아	11	1	0	0	*지역 전파	0
에스토니아	10	7	0	0	해외 유입	0
아제르바이잔	9	6	0	0	해외 유입	0
조지아	9	0	0	0	해외 유입	1
슬로베니아	9	3	0	0	*지역 전파	0
루마니아	7	1	0	0	*지역 전파	0
러시아	7	3	0	0	해외 유입	0
벨라루스	6	0	0	0	*지역 전파	2
폴란드	5	4	0	0	해외 유입	0
헝가리	5	3	0	0	해외 유입	0
북마케도니아	3	2	0	0	해외 유입	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	0	0	0	*지역 전파	2
룩셈부르크	2	1	0	0	해외 유입	0
안도라	1	0	0	0	해외 유입	4
아르메니아	1	0	0	0	해외 유입	5
바티칸 시국	1	1	0	0	조사중	1
라트비아	1	0	0	0	해외 유입	4
리히텐슈타인	1	0	0	0	해외 유입	1
리투아니아	1	0	0	0	해외 유입	8
모나코	1	0	0	0	조사중	6
세르비아	1	0	0	0	조사중	1
슬로바키아	1	1	0	0	*지역 전파	0
우크라이나	1	0	0	0	해외 유입	3
영도국						
지브롤터	1	0	0	0	조사중	3

국가/지역	확진 환자 수	확진환자 (신규)	사망자 수	사망자 수 (신규)	감염경로	마지막 날부터 보고 된 일수
동남아시아						
태국	48	1	1	0	*지역 전파	0
인도	31	1	0	0	*지역 전파	0
인도네시아	2	0	0	0	*지역 전파	5
부탄	1	0	0	0	해외 유입	1
네팔	1	0	0	0	해외 유입	43
스리랑카	1	0	0	0	해외 유입	40
중동						
이란	4,747	1,234	124	17	*지역 전파	0
쿠웨이트	58	0	0	0	해외 유입	2
바레인	49	0	0	0	해외 유입	4
아랍에미리트	45	18	0	0	*지역 전파	0
이라크	44	8	4	2	해외 유입	0
레바논	22	6	0	0	*지역 전파	0
오만	16	0	0	0	해외 유입	1
카타르	11	3	0	0	해외 유입	0
사우디아라비아	8	0	0	0	해외 유입	1
파키스탄	5	0	0	0	해외 유입	4
이집트	3	0	0	0	해외 유입	1
모로코	2	0	0	0	해외 유입	2
아프가니스탄	1	0	0	0	해외 유입	12
요르단	1	0	0	0	해외 유입	4
튀니지	1	0	0	0	해외 유입	4
영토국						
팔레스타인	16	9	0	0	*지역 전파	0
아메리카						
미국	123	65	11	1	*지역 전파	0
캐나다	51	6	0	0	*지역 전파	0
에콰도르	14	1	0	0	*지역 전파	0
브라질	13	6	0	0	해외 유입	0
칠레	5	4	0	0	해외 유입	0
멕시코	5	0	0	0	해외 유입	5
아르헨티나	2	1	0	0	해외 유입	0
콜롬비아	1	1	0	0	해외 유입	0
도미니카공화국	1	0	0	0	해외 유입	5
페루	1	1	0	0	해외 유입	0
영토국						
세인트마틴섬	2	0	0	0	조사중	4
세인트바스섬	1	0	0	0	조사중	4
아프리카						
알제리	17	5	0	0	*지역 전파	0
세네갈	4	0	0	0	해외 유입	2
카메룬	2	1	0	0	*지역 전파	0
나이지리아	1	0	0	0	해외 유입	8
남아프리카공화국	1	0	0	0	해외 유입	1
토고	1	1	0	0	해외 유입	0
기타						
일본 크루즈	696	0	6	0	집단 감염	1
총 합	21,114	3,633	413	78		

* 현재 대한민국은 입국제한 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개정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중국(홍콩, 마카오)등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를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구분하고 있음.

* 지역전파 45개국으로 증가하였음.



중국 외 지역의 유행 곡선 (2020. 3. 7. 18:00 기준) (출처) [WHO Situation Report](#)

●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 멈춤' 전국적으로 확대

- 서울시는 3월 초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하에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운동 '잠시 멈춤'을 추진하고 있음
 - *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수칙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처럼 비말 등의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병의 예방에 효과적인 수칙으로 알려져 있음
- '잠시 멈춤' 캠페인이 시작 후 서울시 교통량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종교계, 민간기업 등 여러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음
 - * '잠시 멈춤' 캠페인이 시작된 후(3.2~3.4) 1월 대비 지하철 이용 37.4%, 버스 이용 32.5%, 자동차통행량(3.2~3.3) 8.9% 감소, 이는 위기 단계 '심각'으로 격상한 2월 5주차(2.24~3.1)보다 더욱 감소한 수치임
 - * 또한 불교계는 주요 30개 종단의 법회 취소하고, 천주교는 236년 역사상 처음으로 16개 모든 교구 미사 중단 결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한국교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을 적극 요청
 - * 한화그룹, LG유플러스, KT 등 대기업들 역시 공동휴가, 재택근무 등을 확대, 영상회의, 모바일 통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음
- 서울시는 미디어재단 TBS, 포털사이트, 민간방송, 라디오 등과 연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홍보매체 동원하여 캠페인 및 시민이 함께 지킬 수 있는 실천수칙 등을 홍보해 나가고 있음

잠시 멈춤 캠페인 실천수칙

하나, 나는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을 연기하는 등 타인과의 만남을 자제하겠습니다.
둘, 나는 전화, 인터넷, SNS로 소통하며, 지인과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하겠습니다.
셋, 나는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로 개인 위생수칙을 늘 지키겠습니다.

- 또한 일상생활 속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공유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잠시멈춤' 시민 아이디어 온라인 공모도 진행 중임

잠시멈춤 온라인 시민공모: "동네방네 알리고 싶은 코로나19 일상생활 속 노하우"

- 참여기간 : 2020. 3. 2. ~ 3. 31.
- 응모방법 : 본인 계정 인스타그램(#) 및 '내 손안에 서울' 페이지 참여 링크*
 - 나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을 사진이나 글로 등록
- 경품내용 : 총 400명, 모바일 기프트콘(1만원 문화상품권)
- 참여링크 : <http://mediahub.seoul.go.kr/missions/12715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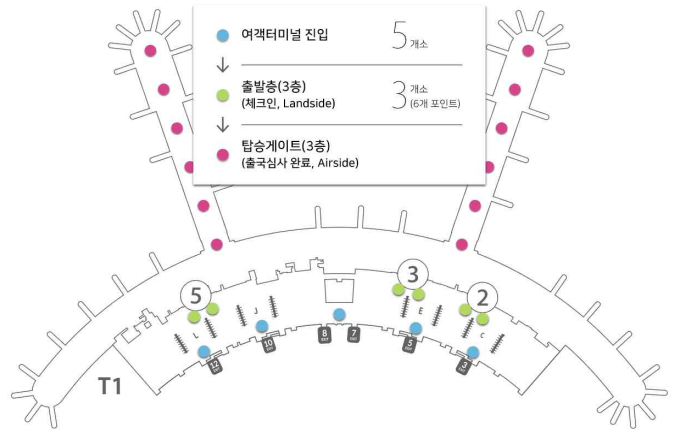
- 서울시는 정부기관 및 전국 자치단체, 국내외 외국인 기업 및 커뮤니티 등에 '잠시 멈춤' 동참 협조 요청했으며, 지난 3.3(화)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화상회의에서 경기도도 동참할 뜻을 밝힘, 전국 확산 전망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사례

분야	대상	내용	
종 교	불 교	• 주요 30개 종단 법회 중단	-사찰 1만 5000여 곳
	천주교	• 16개 모든 교구 미사 중단	-236년 역사상 처음
	개신교	• 대형교회 중심 예배 중단	-신도 수 1만 명 이상 대형교회 41곳 중 32곳 중단
		• 주요 대형교회 경증환자 수용시설 제공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요청
원불교	• 법회 전면 중단	-105년 역사상 처음	
문 화 예 술	예술의전당	• 3월 공연 73% 취소 • 직원 출퇴근 시간 조정, 재택 교차근무 도입	
	돈화문국악당	• 공연 실황영상 온라인 제공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온라인 생중계
	서울시립미술관	• 전시회 <강박> 온라인 전시서비스 제공	
	한성백제박물관	• VR을 이용한 박물관 체험서비스 제공	
기 타	• 주요 공연 잠정 연기 : 방탄소년단(BTS) 콘서트 등 • 서울시-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응방안 논의		
체 육	프로축구	• 정규시즌 개막 연기(K리그1 3.8. / K리그2 3.7.)	
	프로야구	• 시범경기 전면취소(3.14.~24.), 정규리그 연기 검토	
	프로농구·배구	• 정규리그 잠정 중단	
	기 타	• 주요 체육대회 잠정 연기 • 자치구 체육회 산하 클럽 활동중단 요청 • ‘서울아 운동하자!’ <온라인 체육관> 운영 • 생활체육지도자 등과 연계, 홈트레이닝 유도	-ISU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대회 : 3.13.~15. -서울국제마라톤대회 : 3.22. -2020 서울시민리그(S리그) : 3.28.~12월 -8,800여개, 40만여 명 가입 -네이버 TV에 업로드된 영상 온라인 확산, 시민수요 대응 -복지관,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등 체육지도 회원 대상 운동 지도영상 배포·확산
관 광	서울시투어버스	• 전체 6개 노선 중 4개 노선 최장 2개월 휴업	
교 육	유·초·중·고	• 개학일 연기 : 3.9. → 3.23.	
	학원·교습소	• 서울시 관내 학원·교습소 휴원 권고	-3.4.현재 관내 총 25,240개소 중 8,236개소 휴원(32.6%)
	기타	• 교육공백 최소화를 위한 무료 온라인강의 제공	-강남구: 중·고등학생 강좌 900개 2주간 무료제공 -천재교육, 응진씽크빅: 초등 콘텐츠 개학까지 무료제공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고등 전 강좌 개학까지 무료제공
방 송	지상파 3사	• KBS : 시청자 견학 중단 및 KBS 수원센터 잠정휴관 • SBS : 견학 중단 • MBC WORLD 휴관	
재 계	재택근무	• 주요 대기업 중심 재택근무 확대	-SK건설 : 건설업계 첫 손직원 재택근무 -SK텔레콤, 삼성, LG, 한화, 네이버 등
		• 대민서비스 제공기업 순환형 재택근무 시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가스공사, KT 등
	유연근무	• 주요 대기업 중심 유연근무 확대	-GS건설, 현대건설, 두산 등
	중소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동참 • 중소기업 대상 재택근무시스템 구축 지원	-희망기업 수요조사, 업체 매칭: 서울시, 중소기업중앙회 -알서포트(주), 이스트소프트, NHN 등: 원격지원 시스템,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등 무상제공
	업무환경 개선	• 구내식당 테이블 칸막이 설치 : LG그룹 • 신입사원 대상 ‘모바일’ 교육 실시 : LG유플러스 • 영상회의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 : 삼성SDS • 신입사원 채용기간 연장, 면접일정 연기 : 롯데그룹 • 유급휴무 연장 : 엔씨소프트	
기 타	•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 독려	- 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자문회의(FIAC) 등 경제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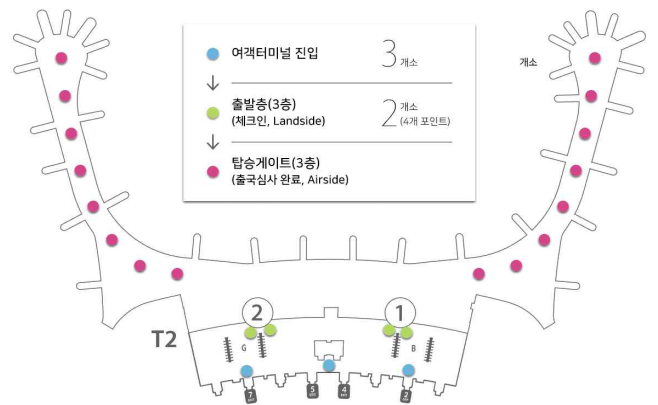
● 한→미국 간 원활한 항공교류 위한 방역망 총력

-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대외 경제활동을 위한 핵심 비즈니스 노선인 한↔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국시 감염병 확산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방역망을 단계적으로 구축, 3.11일(수) 0시부터 적용한다 밝힘
- 우리나라 방역 신뢰도 제고하기 위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이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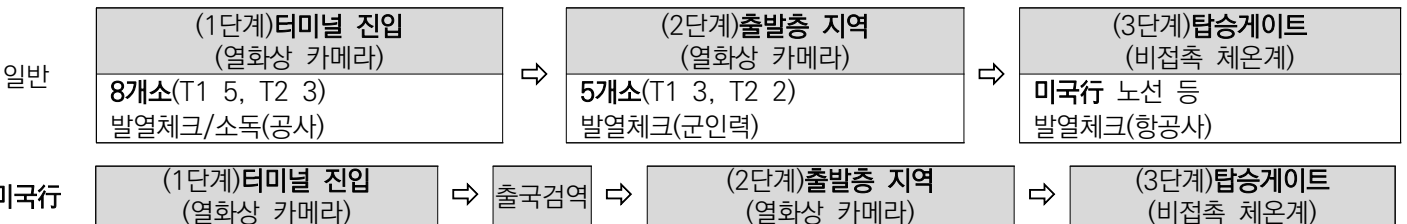
(1)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 (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함
-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됨
 - *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 지속되는 경우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 확진 경우 격리병상으로 이동



(2)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9. 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임



-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조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조를 시행
 - *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음
-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 한국발(發)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함
- (1차) 항공사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 선별, (2차)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 선별,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
- 대한민국 정부는 이상의 세 가지 방역망을 가동하여, 미국 정부의 한국발(發) 항공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한↔미국 노선에서의 불편함 없는 경제활동을 뒷받침, 여행편의 확보 계획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후속조치 사항

- 보건복지부는 3월 7일(토) 코로나19 확진 직원 한 명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 즉각대응팀 및 세종시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부내 직원 접촉자를 우선 분류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은 출근 자제 및 자택 대기 명령을 실시했음
 - *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보건복지부 직원 중 접촉자 2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하였다.
 - * 흡사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동일 공간을 사용하는 같은 국의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별도 진단검사를 진행하였으며, 전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자가격리 대상 접촉자 외의 직원은 월요일부터 정상 출근할 예정임
 - * 참고로 세종시에서는 스포츠댄스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이 둘은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역학조사 결과와 '코로나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제2-1판)'에 따라 확진자 동선으로 확인된 정부 세종청사 10동 1층, 5층, 6층 전체와 엘리베이터 등에 제4급 암모늄화합물 성분의 소독제로 소독을 완료함
 - * 기타 동선에 따른 국가보훈처,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구내식당, 휴게공간, 화장실 등에 대한 소독도 완료함

● 취약계층 생활시설 방역현황 및 향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약계층 생활시설에 대한 예방적 보호조치를 강화함, 이는 최근 경북지역에서 시설 내 확진자 발생이 확산 추세를 보임에 따라 내려진 결정임
 - * 이미 경기(3.1.)와 경북(3.5.)에서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생활시설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 이는 감염에 취약한 다중·집단 시설에 대한 외부인 접촉 차단, 지역 확산 방지 위한 예방적 조치임

[요양병원]

- 지난 2월에 이어 전국 요양병원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3월 12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 요양병원은 감염에 취약한 노인 입원환자가 많은 곳으로, 2월 전국 1,43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 등 여행 이력 종사자 업무배제, 면회객 제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여부 등을 조사함
-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 폐렴으로 치료 중인 460여명(3.5. 기준)에 대해서는 모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임

[취약계층 생활 사회복지시설]

-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코로나19 차단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감염병 예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 해당 지침에 따라 '종사자·입소자 등 개인위생 준수', '1일 2회 발열 체크', '시설 입소자 면회·외출·외박 제한', '종사자 업무배제' 등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 사회복지시설의 지침 이행 여부 점검, 2월 9일부터는 '종사자 업무배제', '시설 운영 중단'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음

● 303개 「국민안심병원」 지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안심병원」 신청을 받아, 3월 7일(토)기준 총 303개 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힘
 - * 국민안심병원: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
- 303개 병원은 모두 호흡기 전용 외래구역을 운영하며, 이 중 209개소는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113개소는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을 병행하여 운영
- 고혈압·심장질환 등 호흡기질환이 아닌 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증상 의심 시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함
 - * ①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사환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선별진료소, ②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자는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 ③ 고혈압·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증상은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 이용

● **보건복지부-대한병원협회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협약 체결**

-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3월 6일 오후 1시 30분, 충남 대구1 생활치료센터(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체결함
- 이번에 체결된 협약을 통하여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파견 요청을 받은 경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 간호사 등 의료진을 생활지원센터에 파견하여 경증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에 협조하게 됨
- 이를 통하여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이 보다 신속하게 확보되어 체계적인 환자 관리와 센터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대구·경북·천안지역 생활치료센터 8개소에 총 1,110명의 경증 환자가 입소했다고 밝힘
 - * 대구1 센터(중앙교육연수원) 142명 / 경북대구1 센터(삼성인력개발원) 204명 / 경북대구2 센터(농협교육원) 233명 / 경북대구3 센터(서울대병원인재원) 99명 / 경북대구4 센터(한티 대구대교구 피정의 집) 55명 / 경북대구5 센터(대구은행연수원) 36명 / 충남대구1(우정공무원교육원) 285명 / 경북1 센터(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 연수원) 56명
- 3월 6일에 센터 2곳(우정공무원연수원,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이 추가로 지정·운영됨에 따라, 전날 대비 센터에 추가로 입소한 경증 확진자는 345명이 증가, 입소정원(1,527명) 대비 73% 입소
- 지정된 8곳의 생활치료센터에 의사 36명, 간호사 58명, 간호조무사 45명 등 총 152명의 의료인력 파견하고 있으며, 새롭게 순천향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이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 자문에 참여하고 있음
 - * (기존 참여 병원) 경북대병원, 삼성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 3월 8일에는 '충북대구2 생활치료센터'(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3월 9일에는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국민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 '경북대구7 생활치료센터'(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가 설치될 예정임
 - * '경북대구6 생활치료센터'(경주 컨싱턴 리조트)는 지자체 사정으로 지정 취소

● **대구시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실시**

- 대구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자가격리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긴급돌봄서비스는 보호자의 격리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하거나, 서비스제공자의 확진 등으로 서비스 이용이 곤란해진 대상자 중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주·야간(24시간) 및 주말에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 봉사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모집 나흘 만에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293명이 지원하였음
- 모집된 돌봄 봉사자들은 보호자 확진 등으로 임시쉼터에 보호 중인 아동 및 어르신들께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일조하게 됨

긴급돌봄 제공 실적

- (아동) 아동 2명*에 대해 돌봄인력 9명 투입
 - * 보호자 확진으로 임시쉼터에 보호중, 24시간 돌봄 제공
- (노인) 노인 10명*에 대해 돌봄인력 9명 투입
 - * 이용하던 기관 휴관에 따른 돌봄공백 8명, 돌봄인력 및 보호자 확진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된 2명, 정서지원, 장보기 등 일상생활 지원
- (장애인) 시각 장애인 1명*에 대해 돌봄인력 1명 투입
 - * 이용하던 기관 휴관에 따른 돌봄 공백에 대해 일상생활 지원
- (복지시설) 시설 종사자 자가격리에 따라 생활인 돌봄 위해 대체인력 5명 투입하여 서비스 제공

● 중증환자 병상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 중증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충을 추진 중임
 - * 치료 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 등 100여 개 기관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을 지속적으로 확충 추진 중임
 - * 우선, 국립대병원의 병상 확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병원은 40병상, 경북대병원 및 충북대병원은 각각 30여 병상 등 16개 국립대 병원이 3월 중에 총 250여 병상 확충 계획
- 병원별 가용 음압 병상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상 현황 파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늘부터 운영 중임
- 병상 확충과 함께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기관 간 환자 전원체계가 중요함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전원지원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신속한 전원을 위해 전원지원상황실이 시·도가 아닌 해당 의료기관과 직접 협의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바 있음

● 코로나19 관련 심리지원 체계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심리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참여 확대,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의 심리지원 강화하는 등 심리지원 체계 개선하기로 함
 - * 생활치료센터에는 관할 국립정신병원이 확진자에 대한 심리교육과 심리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용품 등 자료를 제공하며 기본적인 심리상담 전화 제공함
 - *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하기로 함
-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해서는 병원 치료 중인 환자는 병원 자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하고, 필요한 경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전문의를 협진 형태로 배치하기로 함
- 의료인 등 현장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개발한 재난 종사자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응급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유선 전화 응대 예정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및 자가격리자의 격리생활 중 심리지원을 위해 민간기업(왓차)과 영상콘텐츠를 1달간 무료로 제공하는 협력 또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 국립정신병원, 보건소 및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확진자와 그 가족, 자가격리자, 일반인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지속 실시하고 있음
 - * 그간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가격리자, 일반인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24,272건, 정보제공 139,124건을 실시(3. 5. 09시 기준 누계 실적)
 - * 국가트라우마센터 등에서는 확진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 2,501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정보제공 4,872건(3. 5. 09시 기준 누계 실적)을 실시

Feasibility of controlling COVID-19 outbreak by isolation of cases and contacts

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기 위한 감염자 추적조사 및 격리활동의 실효성

Hellewell, J ., Abbott, S., Gimma, A., Besse, N. I. Jarvis, C. I., Russell, T. W., et al.

□ 서론

- 초기 감염자 격리 조치는 감염성 질환의 유행 확산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채택되어 왔음. 마찬가지로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 각 국가 방역당국은 감염자 추적조사를 통한 격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어느 수준까지 격리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임
 - 격리 전략의 수준 및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병원체 역학조사를 면밀히 수행하여야 함. 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코로나19의 특성은 불확실하며 각 국가마다 조사된 결과에 있어 차이가 존재함
- 본 논문은 코로나19 발생 시나리오별 수리적 모델을 설계하여 코로나19 유행병 확산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격리활동 수준 및 추가적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가능하고자 하였음

□ 연구 방법론

- 본 논문은 급성호흡기질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유행병 확산을 통제하는 데 필요한 격리조치 수준을 수치화하기 위해 수학적 전염발생 모델(stochastic transmission model)을 설계하였음.
 - 역학관점에서 바이러스 전염 유행병 확산 정도는 ①재생산지수(RO, 한 명의 감염자가 평균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지), ②초기 감염자 수 규모, ③질병상태 발현 후 얼마나 빠르게 격리되는 지(격리신속성), ④질병 상태 발현 전(잠복기) 전염 비율, ⑤무증상자 감염 비율, ⑥방역당국의 추적조사 및 격리역량에 달려 있음
 - **재생산지수:** 바이러스 세포의 전염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바이러스의 외부 생존 시간, 바이러스 세포의 인체 투입 생물학적 기전(소량 바이러스의 침투가능성), 사회 환경 내 사람 간 접촉 빈도가 활성화될수록 재생산지수가 높아짐. 본 연구에서는 재생산지수(RO)를 1.5명, 2.5명, 3.5명인 상황으로 설정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분석함
 - **초기감염자 규모:** 초기감염규모가 클수록 유행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 초기감염자 규모가 클수록 방역 당국이 사람들을 추적조사하고 격리하는 데 실패할 확률도 높아지며, 시간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초기 감염자 규모를 5명, 20명, 40명으로 설정하여 코로나19 유행병 확산 가능성을 분석함.
 - **격리신속성:** 증상 발현 후 격리 전까지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해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격리가 지연될 시 유행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신속히 격리한 경우(증상발현후 3.43일 내 격리), 격리지연이 발생한 경우(증상발현 후 8.09일내 격리)를 설정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분석함.
 - **잠복기전염:** 증상 발현 전 잠복기 전염이 가능한 경우 추적조사에 따른 격리조치의 실효성이 낮아짐. 본 연구에서는 잠복기 전염비율을 0%, 15%, 30%로 설정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분석함.
 - **무증상자전염:** 무증상자는 본인도 감염된 것인지 확인을 못하므로, 무증상자 감염이 확산될 경우 격리조치 실효성이 떨어지며 유행병 확산 가능성이 높아짐. 본 연구에서는 무증상 감염비율을 0%, 10%인 상황을 설정하여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분석함.
 - **방역당국 역량(통제변수):** 본 연구는 방역당국의 추적조사 및 격리 활동 투입량에 따른 감염자 격리 비율을 0%, 20%, 40%, 60%, 80%로 구분하였음.

<급성 호흡기 바이러스(SARS) 유행병 확산 영향요인별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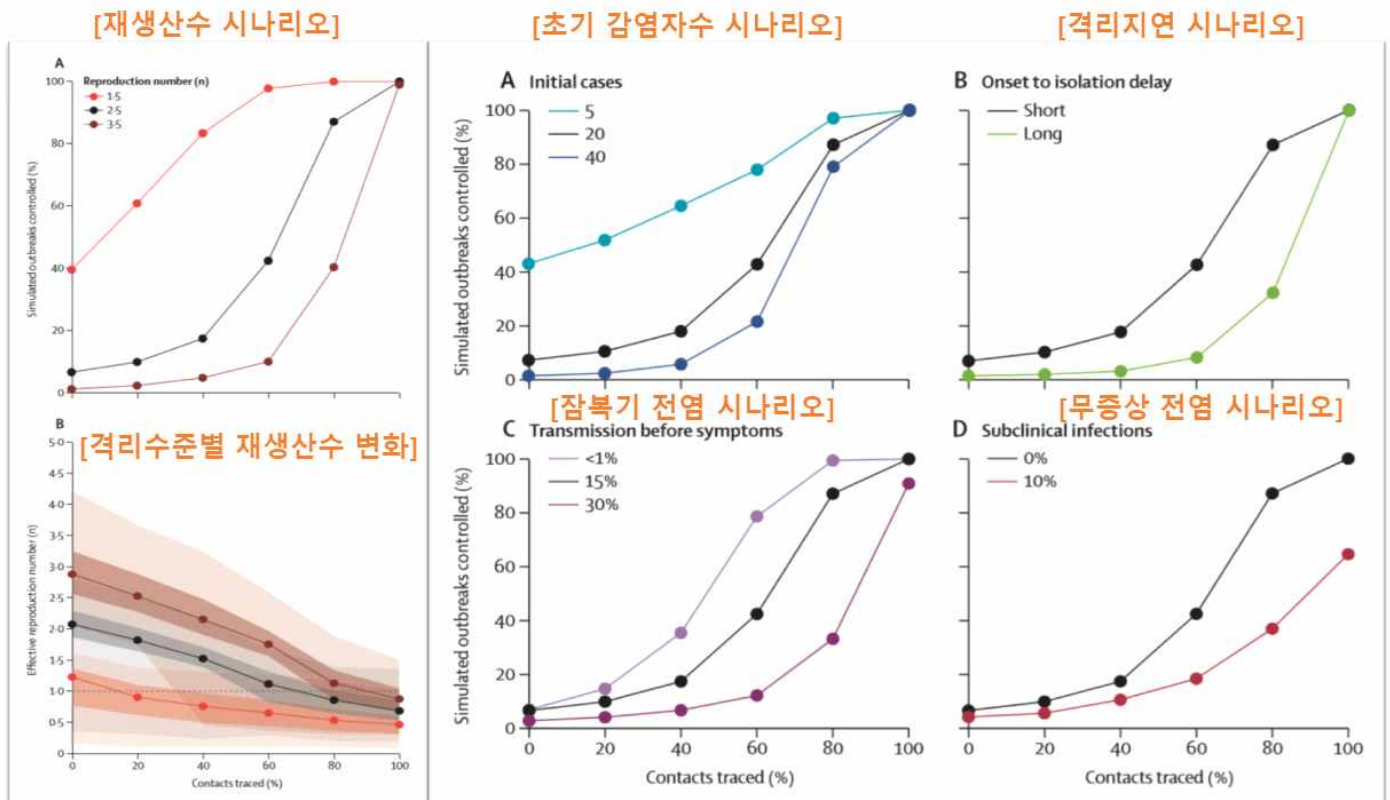
구 분	통제 가능성 높음 <<<<<<>>>>>> 확산 가능성 높음					
재생산지수 (RO)	1.5명		2.5명		3.5명	
초기 감염자 규모	5명		20명		40명	
격리 신속성	신속(3.43일)			지연(8.09일)		
잠복기 전염 비율	1%		15%		30%	
무증상 전염 비율	0%			10%		
감염자격리역량	0%	20%	40%	60%	80%	100%

□ 용어 정의 및 가정

- 감염자 최초 발생시점부터 12주(3개월) 내 추가 확진자 없이 통제되는 경우 성공적으로 통제된 상황으로 정의
- 위 3개월을 초과하거나, 총 감염자 수가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났을 경우는 통제되지 못한 상황으로 정의함
- 국가의 격리 역량 수준(역학조사능력, 검사능력, 격리 능력, 필요한 사회 자원인프라, 시민협조)의 한계가 존재. 감염자가 많이 생길수록 국가 격리 역량의 한계로 인해 추적조사 및 격리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수 있고, 통제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가정

□ 연구 결과

- 바이러스의 재생산수(RO)가 2.5인 경우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감염자의 80% 이상을 격리시켜야 하는 것으로 연구됨. 재생산수(RO)가 1.5인 경우 감염자 20% 수준의 격리만으로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음
 - 바이러스 재생산수가 2.5 이상인 경우 유행성 전염병을 통제하려면 감염자의 80% 이상을 격리해야 함
- 초기 감염자수가 5명인 경우 가장 낮은 10% 수준의 격리활동만으로 3개월 내 바이러스 통제 가능성은 50% 수준임. 하지만 초기 감염자수가 40명 이상일 경우 감염자의 80%를 격리한다고 하여도 3개월 내 바이러스 통제가능성은 80%에 미치지 못함
 - 초기 감염자가 많을수록 유행성 전염병 통제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짐. 초기 감염자가 많은 경우 감염자의 80%를 격리한다고 하여도 통제 불가능성(25%내외)이 존재하였음
- 질병상태 발현 후 격리까지의 시간은 유행성 전염병 통제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조사됨. 증상발현 후 격리까지의 시간 지연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뒤늦게 감염자의 80%를 격리한다고 하더라도 유행성 전염병의 통제 가능성은 31%로 떨어짐. 같은 상황에서 시간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는 유행성 전염병 성공확률이 89%인 것에 비하여 58%p 낮음
 - 격리지연 시 격리수준 80%로 끌어올린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확산 통제 성공확률은 31%로 낮아짐. 초기 질병상태 발현 후 신속한 격리 여부가 격리 활동 성공을 좌우함.
- 잠복기 내 감염 비율이 15%, 30%인 경우 격리수준을 80%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유행성 전염병 통제 가능성은 각각 85%, 40%로 급격히 떨어졌음. 반면 무증상 감염 비율이 10%인 경우에는 격리수준을 80% 높인다고 하더라도 유행성 전염병 통제 가능성은 37%로 급격히 떨어졌음.
 - 잠복기 내 감염 및 무증상자 감염이 발생할 경우 유행성 감염병 통제 가능성 현저히 낮아짐. 감염자 격리 조치만으로는 바이러스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방역활동이 요구됨



※ 시나리오별 추이 분석: 각 실선, x축: 감염자 격리 수준(오른쪽일수록 격리 강도 심화), y축: 바이러스 통제 성공률(높을수록 높음)

□ 연구 함의

○ 현재 코로나19의 발현 증상 및 역학조사 결과에 비추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현재 최대한 수준(80%이상)의 감염자 격리활동이 필요.

- 일반적으로 알려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생산수를 2.5명, 잠복기 감염을 15%으로 설정해보았을 때 통제확률 90%를 담보하기 위해서 격리 수준을 80%로 끌어올려야 함
- 효과적인 격리활동은 초기 감염자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확산 통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치임.

○ 하지만 다양한 외부요인을 고려하였을 때 감염자 격리활동 만으로는 바이러스 확산 통제 가능성이 낮음. 감염자 격리조치 뿐만 아닌 추가 조치들이 필요함

- 감염자수가 많아질수록 방역당국의 격리 역량이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을 추가로 고려하면 감염자 격리활동을 통한 코로나19 통제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음
- 코로나19가 증상 발현 전 감염, 무증상 감염이 시작되는 경우 감염자 격리만으로는 전염경로 차단하기 어려움
- 감염원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문화형성, 기저질환을 보유한 감염 취약자들의 외출 자제 조치, 위험 지역 유입자들의 차단, 마스크와 같은 보호장구의 착용, 위생도구(손소독제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연구 의의

○ 연구 결과 함의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대구시 및 경북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도는 추적조사, 선별진료, 격리조치를 통해 격리활동 수준을 높은 수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격리 활동의 효과가 현재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판단됨. 하지만 지역사회 확산 위험도 증가 및 잠복기/무증상 감염 우려로 인하여 격리조치 이외의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 3개월 내 통제 가능성은 격리 역량 수준(방역 인프라, 의료인력 자원, 시설, 시민들의 자발적 선별검사)에 달려 있으므로 적극적인 격리활동이 요구됨
-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잠복기 및 무증상 감염가능성이 보도되고, 격리시스템 내 우발사건 발생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격리수준 강화 이외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손소독제 생활화', '취약계층 외출자제' 등의 방역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요구됨

○ 3월 5일 기준 대구시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326명, 경북 확진자는 861명으로 두 시도의 경우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음. 두 시도는 초기 높은 집단 감염자수 발생, 격리지연 발생으로 인해 악화 된 상황에 처해 있음.

- 격리지연 발생을 최소화하고, 격리 인프라 및 인력 수준을 최대한 확충하여 격리수준을 80%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감염자 격리만으로는 통제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감염경로 최소화(위생보호 도구 사용, 사회적 집회 감소, 감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최대한으로 시행하여야 함

● **봉화 푸른요양원 코로나19 확진자 첫 사망...국내 총 50명**

코로나19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여성이 숨졌다. 이로써 국내 총 사망자는 50명으로 늘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구 거주자인 78세 여성은 코로나19가 집단발병한 푸른요양원에서 지난 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 날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7일 오후 2시 5분께 폐렴으로 사망했다. 푸른요양원에서는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처음으로 숨진 사례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전날에도 사망자가 5명이 추가됐다. 이 여성은 경북 15번째 사망자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11551053?input=1195m>)

● **기저질환 없는 사망자 속출, 고령층·집단시설 '빨간불'**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중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진 65세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본 위생수칙·사회적 거리두기 등 원칙을 지켜야 하고, 정부는 시설에 입소한 고령층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61세 사망자가 기저질환이 없었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의 사망률은 1.4% 였다. 정부는 이미 지자체에 배포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통해 65세 이상 확진자라면 당뇨, 만성 폐질환·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예의주시하며, 엄격한 출입제한을 골자로 한 대응지침을 각 시설에 보냈고 다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일부 가능한 노인·장애인 생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를 통째로 격리하는 코호트 격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예방적 보호조치'를 독려하기도 했다. 출처 : 노컷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08050601524>)

● **'메르스 vs 코로나19' 비교했더니..젊은층 거든, 노인층 치명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는 과거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과 비교했을 때 치명률(사망자/확진자)은 낮지만, 면역력이 낮은 고령층에서 치명률이 상당히 높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활동적인 젊은층이 가정으로 바이러스를 옮길 경우 집안 내 고령자들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 2015년 발생한 국내 '메르스' 확진자 186명(사망자 38명 포함) 그리고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6767명(사망자 44명 포함)을 분석한 결과 두 감염병 모두 사망자들은 고령이면서 고혈압이나 만성폐렴, 당뇨, 암 등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령일수록 병을 이겨낼 힘이 약하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코로나19·메르스 확진자 및 치명률

	코로나19*			메르스**		
	확진자	사망	치명률	확진자	사망	치명률
80세 이상	191	12	6.3%	9	7	77.8%
70대	384	14	3.6%	30	11	36.7%
60대	830	11	1.3%	36	11	30.6%
50대	1287	5	0.4%	42	6	14.3%
40대	941	1	0.1%	29	1	3.4%
30대	727	1	0.1%	26	0	0.0%
20대	2028	0	0.0%	13	0	0.0%
10대	327	0	0.0%	1	0	0.0%
10세 미만	52	0	0.0%	0	0	0.0%
합계	6767	44	0.7%	186	36	19.4%

* 코로나19 치명률은 7일 오전 0시 기준

** 메르스는 2015년 186명 확진, 38명 사망 상황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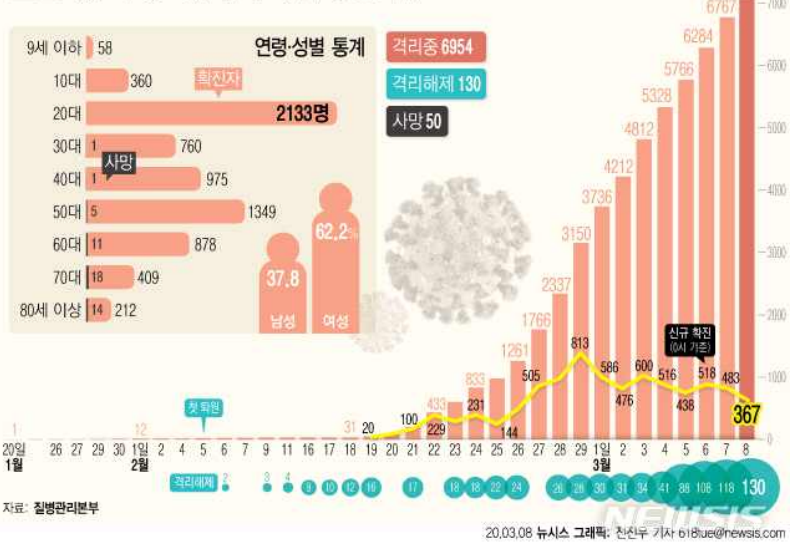


반대로 40대 미만의 젊은 층에선 사망자가 '코로나19' 30대 확진자 1명만 발생했고 나머지에선 사망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증상도 젊고 건강한 30대 이하는 대부분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 최천웅 강동경희대 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이뤄지면, 면역력이 낮은 사람이 이겨낼 힘이 없어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해 더욱 위험하다"며 "노인과 만성질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지므로 더 취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총 확진자 수는 6767명을 기록했다. 총 사망자 수는 44명이다. 출처 : 뉴스1(<https://news.v.daum.net/v/20200308070007248>)

● 코로나19 하루 환자 11일만 400명↓…376명 늘어 7134명

지난 7일 하루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67명 늘어나면서 국내 환자는 7134명이 됐다. 사망자는 50명이며 130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환자는 총 713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일) 0시 6767명보다 367명 증가했다. 일별 신규 환자 11일만에 300명대, 6일 0시 518명에서 3일 연속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이어갔다. 대구·경북 신규환자 감소 추세…대구는 처음 누적 확진자가 2000명대(2055명)를 넘어선 지난달 29일 741명을 기록한 뒤 3월1~3일 500명대, 4~7일 300명대까지 낮아지고 있다. 경북 지역은 3월6일 123명이 급증한 이후 7일 65명 등으로 최근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고 있다. 사망자는 전날 같은 시간 44명에서 6명 늘어난 50명이 됐다.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된 확진 환자는 7일 하루 12명 증가하면서 118명에서 8일 0시 현재 130명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추이 (단위: 명) 8일 0시 기준



출처 : 뉴시스(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8_0000946858&cID=10201&pID=10200)

정책대응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집단감염’ 은평성모병원 조기 재개원 논란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은평구 은평성모병원의 재개원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은평성모병원은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환자를 돌볼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자가격리 기간을 채워 감염 위험이 없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은평성모병원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모두 14명으로 서울시에서 발생한 최대 집단발병 사례가 됐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 전원이 음성이나왔고 방역도 마쳤다”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재개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은평성모병원이 재개원하려면 서울시로부터 병원 폐쇄명령을 종료하는 또 다른 행정명령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입장은 “안전 제일”로, 격리기간 지침인 14일을 다 채워야 재개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서울신문(<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6004014>)

● ‘코로나19’ 확산, 이란 교민 전세기로 철수 추진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이란에서 이번 주 내에 교민과 주재원을 전세기로 철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주이란 한국대사관에서 이란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을 대상으로 한국행 전세기에 탑승할 의향이 있는지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란에 거주하는 교민과 주재원은 220명 정도로, 개인적으로 귀국한 인원을 제외하고 100명 안팎이 전세기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은 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747명, 사망자가 124명 발생했다. 중국, 한국, 이탈리아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931580.html>)

● 정세균 총리 “저부터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마스크 5부제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사람들이 먼저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해달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는 8일 대구시청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총리는 자신부터 일회용이 아닌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931586.html?fr=mt2&fbclid=IwAR19U3eATJKdUsxhEr2Y6A-QZGGbDRM4M8YKcpWP67so1DDIZv0zEs>)

● 정부, 문 대통령 지시 ‘전 부서 코로나19 24시간 긴급상황실 가동’

모든 정부 부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긴급상황실 체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비상대응 기구는 주중과 주말 구분 없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담당자의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조직 내 인력을 골고루 활용해 근무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00306505988?OutUrl=naver>)

● 감염병 유행 때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국외 반출 금지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감염병이 유행할 때 방역 당국이 보건용 마스크 등 예방에 필요한 국내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의하면 제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 부족으로 국민 건강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보호장비 등의 수출이나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6500015>)

● 마스크업체 '원가 절반 인정·10배 생산' 정부 요구에 생산중단

치과용 마스크를 하루 1만장 생산해 공급해온 국내 마스크 제조업체 이덴트가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덴트는 "단가가 싼 중국산원단 필터를 사용하지 않아 생산단가를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데도 조달청에서는 생산원가 50% 정도만 인정해주겠다는 통보와 일일 생산량의 10배에 달하는 생산수량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산량을 늘리려 인원을 총원하는 상황에서도 마스크값은 1원도 안 올리고 공급해왔는데 더 손실을 감수하면서 마스크를 생산해야 할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034300017?input=1195m>)

● 서울시도 추경 나서... '메르스 8900억' 훨씬 넘어설듯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8900억원을 편성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사회 감염까지 상황이 악화된 만큼 추경 규모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코로나 19 추경 편성을 위해 각 부서별로 예산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 추경은 매칭사업 등에서 정부 예산과 연계성이 있는데, 아직은 정부 추경안이 통과된 상태가 아니라서 규모나 시기 등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앞서 2일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시민들에게 2주간 '잠시 멈춤'을 제안하면서 "당장 멈췄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64084>)



●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코로나19 대응 공공의료 의미 되살릴 기회...장애인시설에서 사각지대 생기지 않도록 행정지원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초1)은 코로나19의 확산예방과 대응을 위해 서울시 외에 위치한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서울시에는 12개의 시립병원 있고, 그 중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서남병원, 서북병원이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공의료의 의미를 이번 기회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다."라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현재까지 서울시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은 선제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몇몇 기관이 서울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외될 여지가 있다. 또한 지방의 환자들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고 치료해야 한다."라고 밝히는 등 서울지역 의료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출처 : 서울Pn(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5500176&wlog_tag3=naver)

● 서울시 "정부에 마스크필터 관리·KF80 위주 생산유도 건의"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마스크뿐 아니라 마스크 필터까지 관리하고 KF80 마스크 위주의 생산을 유도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체 보유한 마스크 비축 물량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되, 먼저 이를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감염 우려가 높은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 외에 다른 근로자에게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091400004?input=1195m>)

● 서울시 심리상담, 감정노동자→전직종 한시 확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감정노동자에게 제공해 오던 심리상담을 전 직종 노동자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방문 학습지 교사, 돌봄, 가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상담은 방문이 아니라 전화로 진행된다. 센터 상담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모든 상담은 무료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4181700004?input=1195m>)

● 남북정상 코로나 친서교환…쑤 "조용히 응원" 文 "감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친서를 주고 받았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윤 수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5일)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김 위원장에게 보냈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코로나19 관련 물자 등 지원에 대한 구체적 요청이나 개별관광 및 남북협력 추진 등에 관한 입장이 담겨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64244>)

연구동향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우한 연구진 "코로나19 '스텔스능력' 강해져..놀라운 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파를 거듭하면서 뚜렷하게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면서 사람의 몸에 기생하는 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19 확진 환자들에서 고열, 피로감, 근육통 같은 전형적 증세가 나타나는 비율이 줄어 새 환자를 발견해내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코로나19가 점차 일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처럼 변해 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장기간 인체에 잠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진은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3차, 4차 전파는 물론 무증상 전파까지 나타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식별이 더욱더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면서 시기별 입원 환자들의 임상 증세 차이 연구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078000089?section=search>)

● 국내 연구팀, 코로나19 한시간 내 검출 新기술 개발

코로나19 검출 시간을 현재의 6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이는 등온유전자 증폭법을 이용해 실제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검체와 바이러스가 포함되지 않은 시료를 비교함으로써 10분 만에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검증해냈다. 핵산 추출 시간도 30분 이내로 줄여, 해당 기술이 적용된다면 검체 채취 이후부터 확진까지 1시간 안에 가능하다. 한편, 이번 기술 개발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원하는 '방역연계 범부처 감염병 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됐다. 현재 개발된 초고속 진단시약은 특허를 출원 중이며 관련 병원과 협의를 마치고 식약처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 메디칼타임즈(<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380&REFERER=NP>)

● “아이들 코로나19에 강하다?”...아동 청소년 코로나 감염가능성, 어른과 동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 중국 선전질병통제예방센터, 하얼빈공대 공동연구팀은 아동 청소년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감수성)이 어른과 동일하다고 6일 밝혔다. 연구팀은 지난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확진환자 391명과 이들과 접촉한 밀접접촉자 1286명을 추적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노출됐던 10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다른 연령대와 동일한 감염률을 보였으며 밀접접촉 아동의 7~8%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가족 중 일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밀접접촉을 하게되면 다른 상황에서 밀접접촉했을 때보다 감염가능성은 6배 가량 높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저스틴 레슬러 존스홉킨스대 교수(전염병학)는 “어린이들이 감염될 가능성은 어른과 같지만 중증 상태로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아이들이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염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서울신문(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06500070&wlog_tag3=nav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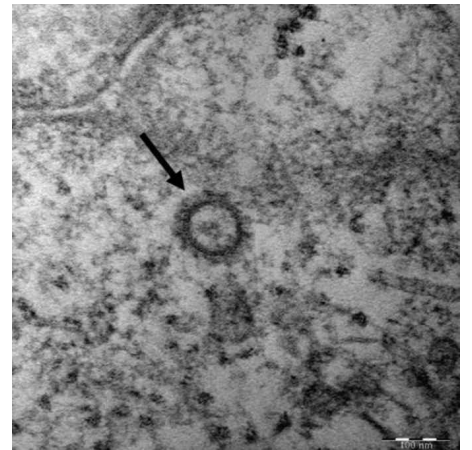
● "코로나바이러스, 침대·욕실에도 남는다…'환경전염'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개인 주거 공간인 침실, 욕실과 화장실까지 광범위하게 오염시킨다는 새 연구 보고서가 싱가포르에서 나왔다고 AF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욕실 표면, 세면대, 변기 등을 평소보다 훨씬 청결하게 관리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문이라고 AFP는 분석했다. 다만 욕실 등에 번지는 코로나바이러스는 하루 두 차례 살균제로 세정하면 대부분 죽는 것이라 너무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0500009?input=1195m>)



● "중국 주장 '코로나19 변이'는 확인…전파력 영향은 조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변이가 생겨 전파력이 더 높아졌다는 중국 연구 결과에 대해, 방역당국은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러스 변이 자체는 보건당국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 '변종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더 높은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변종이 생긴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지난달 27일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환자 6명에게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변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질병관리본부가 바이러스 변이 발생을 인정한 것을 두고, 앞선 발표 내용이 뒤집히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 한명국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분석과장은 "지난 발표 내용은 바이러스 구조 유전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이번에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은 30킬로베이스(kb) 유전체 전체에 대한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130600017?section=search>)



국제현황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중동 코로나19 확진 6천명 넘어…이집트 크루즈선 집단 발병

중동 지역(터키·파키스탄 제외, 이집트 포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란을 중심으로 6천명을 넘어섰다. 7일(테헤란 현지시간) 밤 9시를 기준으로 중동 각국 보건 당국의 발표를 종합하면 중동 13개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6천218명으로 전날에 비해 1천155명(22.8%) 증가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감염 피해가 심각한 이란은 이날 사망자가 21명 추가돼 모두 145명이 숨졌다. 지난달 19일 이란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사망자 증가수로는 가장 많다. 이로써 이란에서는 1일부터 7일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등에서 보낸 코로나19 검사 장비가 지난달 말 이란에 도착한 뒤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집트에서는 나일강을 오가는 크루즈선 '리버 아누켓'호의 이집트인 승무원 12명이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7일 승객 등 탑승자 33명이 감염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집트 보건부는 이 배를 남부 룩소르에 정박하도록 한 뒤 관광객 101명과 승무원 70명을 선상 격리하고 감염 검사했다. 이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하는 바람에 이집트의 확진자 수는 3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706455111?input=1195m>)

● **미국 코로나19 사망19·감염400명 급속 확산…뉴욕주도 비상사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9개 주(州)로 번지며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숨진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었고, 전체 감염자는 단숨에 400명으로 올라섰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평양 연안의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 동부에서도 환자가 속출하며 뉴욕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과 CNN방송에 따르면 서부 워싱턴주에서 이날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추가로 보고되며 전체 사망자는 모두 19명으로 늘었다. 감염자 숫자도 급증했다. 미국 동부의 뉴욕주와 서부의 워싱턴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크게 늘며 전체 감염자는 400명을 찍었다. CNN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환자 현황을 집계한 결과, 감염자 400명 가운데 330명은 미국 본토에서 코로나19 검사를 거쳐 환자로 확인된 사람들이다. 나머지 70명은 미국 크루즈선 '그랜드 프린세스'호의 승객과 승무원, 일본에서 집단 감염 사태를 일으켰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승객들과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10만개의 코로나19 진단 장비를 오는 9일까지 민간 연구실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DA는 이어 코로나19 진단 장비 제조업체들이 다음 주말까지 400만개의 진단 장비를 추가로 만들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더욱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8003651075?input=1195m>)



● **WHO "한국서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고무적 조짐"**

세계보건기구(WHO)는 5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WHO 본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에서 새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보고된 사례는 이미 알려진 집단에서 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억제(push back)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모든 기구가 참여하는 협력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진단 능력 증대, 병원의 대비, 필수 공급품의 준비 같은 비상 계획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계획들은 (각국) 정상들이 리더십을 발휘해 복지부분 아니라 안보와 외교, 금융, 통상, 교통, 무역, 정보 등 정부의 모든 부문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6002552088?section=search>)



● **홍콩 반려견, 코로나19 감염 공식 확인…"사람→동물 첫 전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홍콩 확진 환자의 반려견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홍콩 당국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세 여성의 포메라니안 반려견에 대해 입과 코, 항문 등에서 채취한 샘플을 통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결과 약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지만,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19를 퍼뜨린다는 증거는 아직 없으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출처 : 연합뉴스(<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073900074?section=search>)

● BBC "한국 코로나 관련 'TMI' 정보...사회적 낙인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와 전쟁 중인 한국이 앞선 IT 기술로 전염병을 통제해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과한 정보 제공이 개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BBC 방송이 5일 지적했다. 한국의 발전된 경보시스템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서 시작됐다고 BBC는 전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개인권 침해논란이 제기된 만큼 어느 정도의 시정은 필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끝맺었다.

출처 : 뉴스1(<https://www.news1.kr/articles/?3864524>)

● 코로나 급속 확산에... 지구촌 곳곳 '교육재난'

4일(현지시간)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3개 나라에서 2억9100만명의 아이가 코로나19로 인해 학업 중단사태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다른 9개 국가에서도 휴교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어 1억8000만명의 아이가 추가로 교육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유네스코는 전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거센 이탈리아도 이날 전국 모든 학교를 한시적으로 폐쇄조치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각국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교령에 따른 돌봄 지원책도 내놓고 있다. 일본은 직원들에게 육아 등 돌봄 시간을 할당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이 혼자 남아 고립되지 않도록 코로나19 관련 돌봄 위기가 발생하면 14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출처 : 세계일보(<http://www.segye.com/newsView/20200305517351?OutUrl=naver>)

1. **다인 생활시설에 집중 된 피해자들** -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된 취약계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바이러스 공격에 대응력이 떨어져 직접적 감염 위험에 노출된 건강약자들과 각종 사회복지 관련 프로그램 가동이 중단되면서 방치 위기에 놓이게 된 취약계층 일반이다. 국가인권위도 대남병원과 칠곡 밀알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집단 감염과 관련해 지난 3일 “과도한 장기입원과 건강관리 소홀, 채광과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시설환경, 적절한 운동시설의 부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열악한 거주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의 ‘숙주’ 구실을 한 셈이다. 장애인 등을 집단거주시설에 함께 모여 지내도록 하는 ‘시설 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자립생활을 할 수 없고, 가족들도 생활을 책임지지 못해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3만명가량으로 추산된다.

2. **보건 의료 공공성 강화도 중요** - 불가피하게 시설 수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공공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기폭제 구실을 한 청도 대남병원, 20여명이 집단 감염된 경북 칠곡 장애인시설 밀알사랑의집은 민간 운영 기관들이다. 9명 연쇄 감염이 확인된 대구 북구 장애인 거주시설 성보재활원도 마찬가지다. 경북 봉화 노인의료복지시설 푸른요양원에서 49명 확진자가 나왔다. 반면 지난달 25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치료시설인 서울재활병원에서도 작업치료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기관 폐쇄 조치가 이뤄졌지만,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았다. 김창보 서울시 공공보건 의료재단 대표이사는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1월 말부터 직원들 건강상태 점검과 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숙지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해왔더라”고 말했다. 매뉴얼화된 민주적이고 투명한 기관 운영만으로도 감염 확산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종 복지관과 아동센터 등이 문을 닫으면서, 평소 이들 기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노인 등을 조사하고 도울 수 있는 지역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 **‘밀려난 환자들’ 돌보는 매뉴얼을** - 2015년 메르스 때 경험은 정부 방역체계 운영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는 대목도 적지 않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으로 시 방역대책을 총괄했던 김창보 대표이사는 “당시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들이 제일 먼저 동원돼 기존에 치료 중이던 장애인과 결핵, 에이즈 환자 등을 다 내보냈다. 당시 일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지만 일부는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에도 공공의료 자원이 제일 먼저 동원되면서 같은 상황이 반복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시급한 상황에 대처하느라 중요도에서 밀린 또다른 사회적 약자들이 반복 양산됐다는 얘기다. 그는 “비상 상황에서 공공의료 자원이 가장 먼저 동원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자원이 양적으로 너무 부족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관심·경계·주의·심각 등 위기대응 4단계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단계별로 어떤 자원을 얼마나 동원하고 취약계층 대책은 어떻게 할지 등을 담은 상세한 계획을 세워둬야 한다”고 말했다.

4. **외곽 취약계층들 챙기기…지역사회 노력 결합을** - 재난 대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와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에서는 최근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백 과장은 “기본적으로는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과는 ‘사회적 연대’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희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도 “일상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가정에서 방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하면 제한적으로나마 다시 여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상임연구원은 아울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주민은 지방자치단체·노동청을 통한 소통 채널 구축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차별 조치 가능성이 있는 비정규직·불안정노동층은 노동청의 차별행위 단속 의지 공언 ▲결핵·에이즈 등 특수질환자는 전원·퇴원 때 전문기관 자문 필수화 등 취약계층 유형별로 맞춤형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31453.html>

Health News March 6, 2020 / 5:12 AM

개요 - 이번 주,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뉴욕에도 시작 되었고, 뉴욕은 수백 개의 병상, 진단 테스트 키트 및 지하철 시스템 전체를 닦을 수 있는 충분한 소독제 등을 준비하고 있었음. Bill de Blasio 시장 집권, 보건의료당국은 최근 몇 년간 신종 인플루엔자, 에볼라 및 기타 감염병이 유발하게 될 잠재적 위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왔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한계점도 나타나기 시작함.

한계점 - 일부 병원은 이미 안전 프로토콜 기준을 완화하고 있고, 근무자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가능하면 재사용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만약 감염병이 급증하게 되면, 전문가들은 병상, 인공호흡기, 심지어 의료진 등 다른 자원들도 부족해 질 것이라 말함.

전 뉴욕시 보건 국장이자 감염질환 전문의인 Tom Frieden은 “뉴욕시 보건국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계 어떤 도시라도, 우한에서 발생한 정도의 규모와 강도의 감염질환 발생 상황에 직면한다면 도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함. 8백만 인구가 밀집하여 살아가는 뉴욕은 이러한 감염질환이 잘 확산되는 구조의 도시임. 지금까지 뉴욕에서 COVID-19 확진자는 4명임

존스 홉킨스 건강 보건센터(Johns Hopkins Center for Health Security)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전역의 병상 가동율은 평균 최대치이고, 집중 치료실은 약 46,500개임. 본 보고서는, 추정컨대 약 200,000명의 환자가 ICU 치료가 필요 할 것이라 말함. 그러나, 만약 감염질환이 미국에서 50여만 명을 사망하게 했던 1918 스페인독감의 추세를 따라간다면, 대응력은 급격하게 부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의 공동 저자 Richard Waldhorn은 말함. “만약 본 감염병이 심각한 대유행으로 바뀐다면, 어떤 도시도 이 감염질환을 감당할 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곳은 없을 것이다.”

WASH YOUR HANDS - 뉴욕은 철저한 손씻기의 중요성을 알리는 안내문이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고, 학교 방역 일정을 강화했고, 주정부는 72시간 마다 지하철 방역을 실시중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 할 수 있고, 그 심각성 예측 또한 쉽지 않음. 취약점 중 하나는, 보건의료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해줄 N95 장비의 잠재적 부족임. 일부 병원은 이미 사용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간호사들에게 각각의 환자 대면 시 교체하던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 가능하다면 업무 교대 시까지 사용 하도록 권장함. Blasio 시장은 현재는 N95 마스크 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차 심각해진다면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함. 이를 위해 미국 보건 복지부는 금주 18개월의 국가 비축을 위해, 5억여 개의 N95 마스크를 구매할 것이라고 밝힘

HOSPITAL BEDS - 그러나 일부 측면의 준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임. 예를 들어, 뉴욕시 보건당국은 당장 COVID-19으로 인해 호흡기 치료 필요 발생시, 얼마나 많은 인공호흡기를 이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었음. 그러나 Blasio 시장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역량이 있다”, 뉴욕은 이미 COVID-19 환자를 위해 약 1,2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다고 말함. 2009년 H1N1 인플루엔자(일명 신종플루) 감염병 대유행시, 4월에서 8월 사이에 약 9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해당 질병으로 입원했었음. 데이터에 의하면, 발생 기간 내 가장 바빴던 일주일 동안, 뉴욕 시민 45명이 사망하고, 300명 미만의 환자가 입원했었음. “그러나 상태가 심각해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은 상황이 닦치게 될 때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당시 도시보건 국장인 Isaac Weisfuse가 말했음

출처 :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usa-nyc/prepared-yet-vulnerable-a-battle-tested-new-york-confronts-coronavirus-idUSKBN20S2OX>

[붙임1]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 분류

● 예시1.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확진자 구분	분류 기준	보호 방안
무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래조건 모두 충족 ① 의식명료 ② 50세 미만 ③ 기저질환없음 ④ 비흡연자 ⑤ 해열제 복용없이 37.5도 미만 	연수원, 호텔 등 시설격리
경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50세 미만 ② 5기저질환 1개 이상 ③ 해열제 복용하여 38도 이하 	
중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명료하며 아래조건 하나이상 충족 ① 해열제 복용해도 38도 초과 ② 호흡곤란 	감염병 전문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식이 떨어진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 중환자실)

*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한단계 상승

* 각 단계에서 기준 증상이 해결되고 48시간 지나면 한단계 아래로 전원가능

● 예시2. 혈압, 체온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의 환자 중증도 분류

변수	3	2	1	0	1	2	3
맥박(회/분)		≤40	41~50	51~100	101~110	111~130	≥131
수축기 혈압(mmHg)	≤70	71~80	81~100	101~199		≥200	
호흡수(회/분)		≤8		9~14	15~20	21~29	≥30
체온(℃)		≤35.0	35.1~36.0	36.1~37.4	≥37.5		
의식수준				정상	목소리 반응	통증 반응	무반응

* 환자가 급격한 위급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의미

● 중증도 분류에 대한 조치사항

위험정도	경증(저위험군)	중등증(중등도위험군)	중증(고위험군)	최중증(고위험군)
점수	0~4점	5~6점	7점 이상	7점 이상
모니터링 빈도	6~12시간	1~2시간	지속	지속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증치료 및 증상 경과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계호흡 등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RT, ECMO 필요 비가역적 뇌손상, 다발장기 부전, 말기 만성 간질환 또는 폐질환, 전이성 종양 같은 사망에 직면한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

*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간주하여 병상 배정

● 고위험군

고위험군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65세 이상
만성 기저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특수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입원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7판)」(지자체용)

[국민안심병원 현황]

[서울시]

2020. 3. 6. 기준

연 번	자치구	기관명	신청유형	전화번호
1	강남구	나누리병원	외래진료	1688-9797
2	강남구	연세대학교강남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019-2114
3	강남구	강남베드로병원	외래진료	02-1544-7522
4	강남구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외래진료	02-6925-1111
5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외래진료	1588-4100
6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25-1111
7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440-8114
8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1522-7000
9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양양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877-8875
10	관악구	심정병원	외래진료	02-1588-3330
11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33
12	광진구	혜민병원	외래진료	02-2049-9000
13	구로구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26-1114
14	구로구	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858-0100
15	금천구	희명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04-0002
16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외래진료	02-970-2114
17	노원구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외래진료	02-950-1114
18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외래진료	02-970-8000
19	도봉구	한일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01-3114
20	동대문구	삼육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77-3675
21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58-8114
22	동대문구	서울성심병원	외래진료	02-966-1616
23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70-2114
24	동작구	중앙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6299-1114
25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99-1004
26	서대문구	동신병원	외래진료	02-396-9161
27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1511
28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90-8114
29	성북구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920-5114
30	성북구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외래진료	02-912-0100
31	양천구	홍익병원	외래진료	02-2693-5555
32	양천구	메디힐병원	외래진료	02-2604-7551
33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목동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650-5114
34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외래진료	1899-1475
35	영등포구	성애병원	외래진료	1811-8114
36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829-5114
37	영등포구	영등포병원	외래진료	02-2632-0013~8
38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부속서울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709-9114
39	은평구	청구성심병원	외래진료	02-353-5511~9
40	종로구	세란병원	외래진료	02-737-0181
41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외래진료	02-2002-8000
42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1588-5700
43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외래진료 및 입원	02-2260-7114
44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외래진료	02-2270-0114
45	중랑구	동부제일병원	외래진료	02-437-5011
46	중랑구	녹색병원	외래진료	02-490-2000
총합	22개 자치구	46개소	외래 24개소, 외래진료 및 입원 22개소	-

지역(시도)	기관명
부산(28)	BHS한서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대동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동래봉생병원, 부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산센텀병원, 부산우리들병원, 삼육부산병원, 세웅병원*, 에스병원, 영도병원, 오성병원,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일신기독병원, 좋은강안병원, 좋은문화병원, 좋은삼선병원, 한양류마디병원, 해동병원, 해운대부민병원*, 화명일신기독병원, 효성시티병원
인천(20)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검단탑병원*, 길병원*, 나누리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나은병원*, 뉴성민병원, 더드림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부평세림병원, 비에스종합병원*, 성모월병원, 온누리병원, 인천기독병원, 인천백병원, 인천사랑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림병원*, 현대유비스병원
대구(13)	경북대학교병원, 광개토병원, 구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칠곡가톨릭병원, 대구보광병원, 대구시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드림병원, 삼일병원, 세강병원, 영남대학교병원, 천주성삼병원, 푸른병원
광주(3)	광주기독병원, 서광병원, 전남대학교병원*
대전(6)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건양대학교병원*, 대전선병원*, 대전을지대학교병원*, 대전한국병원, 유성선병원
울산(9)	21세기좋은병원, 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병원, 울산보람병원, 울산시티병원, 좋은삼정병원, 중앙병원
경기(70)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강남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광명성애병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김포우리병원*, 남양디에스병원*, 남양주한양병원, 뉴고려병원*, 다니엘종합병원, 다보스병원, 단원병원,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동수원병원, 메디인병원, 명지병원*, 바른마디병원, 바른세상병원, 박병원*, 박애병원*, 베리굿병원, 부천우리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제생병원*, 사랑의병원, 서울나우병원, 성베드로병원, 세종병원*, 세종여주병원*, 센트럴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시화병원, 신천연합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안성성모병원, 안양윌스기념병원,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 연세새로운병원, 예손병원, 오산한국병원,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원광종합병원, 윌스기념병원, 의정부백병원, 이천엘리아병원, 이춘택병원,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일산복음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 정병원*, 조은오산병원, 중앙대의료원교육협력현대병원*, 지샘병원, 지우병원, 참조은병원, 평택구모닝병원*, 평택성모병원*, 포천우리병원, 하남SD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화성중앙종합병원*, 히즈메디병원
강원(4)	강원대학교병원*, 속초보광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흥천아산병원
충북(9)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베스티안병원, 제천명지병원, 제천서울병원, 진천성모병원, 청주성모병원, 하나병원, 한국병원, 효성병원
충남(11)	단국대학교병원*, 당진종합병원, 백제병원, 본정형외과병원, 서산중앙병원,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아산충무병원*, 예산종합병원, 천안우리병원, 천안충무병원*, 현대병원
전북(8)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대자인병원, 동군산병원*, 예수병원*, 익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전남(11)	고흥종합병원*, 목포기독병원*, 목포시의료원, 목포중앙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롤로병원*, 순천한국병원*, 여수제일병원, 여수한국병원, 여천전남병원, 장흥종합병원
경북(14)	경산중앙병원, 김천제일병원,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상주성모병원, 세명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구미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좋은선린병원, 차의과학대학교부속구미차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세명기독병원, 포항우리병원
경남(27)	365병원, CNA서울아동병원, 갑을장유병원, 거봉백병원, 거창적십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김해복음병원, 마산서울병원, 맑은샘병원, 밀양윤병원, 반도병원, 베데스다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에스엠자연세병원*, 연세에스병원, 조은금강병원, 진영병원, 진주고려병원, 진주바른병원, 진주복음병원, 진주세라병원, 진주제일병원, 창원제일종합병원, 청아병원, 한일병원
제주(4)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총합	15시도 237개소

별(*)표시 기관은 외래/입원/선별진료소 운영기관 그 외 외래진료만 운영. 출처(3.6) : 대한병원협회 국민안심병원 최신행황 (<https://www.kha.or.kr/>).

[붙임3] 서울시 선별진료소 목록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연번	자치구	선별진료소	전화번호
1	강남구	강남구보건소*	02-3423-5555	37	서초구	학교법인가톨릭학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02-1588-1511
2	강남구	삼성 서울병원*	02-3410-2114	38	서초구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02-570-8000
3	강남구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3114	39	성동구	성동구보건소*	02-2286-7172
4	강동구	강동경희대학교의과대학*	02-440-7000	40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	02-2290-8114
5	강동구	강동구보건소*	02-3425-8565	41	성북구	성북구보건소*	02-2241-6022
6	강동구	성심의료재단강동성심병원*	02-2224-2358	42	성북구	(학)고려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안암병원) *	02-1577-0083
7	강동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02-2225-1100	43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02-2147-3478-9
8	강북구	강북구보건소*	02-901-7706 02-901-7704	44	송파구	재단법인아산사회복지재단 서울아산병원*	02-3010-3114
9	강서구	강서구보건소*	02-2600-5868	45	송파구	경찰병원*	02-3400-1124
10	강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서울병원*	02-1522-7000	46	양천구	양천구보건소*	02-2620-3856
11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02-879-7131	47	양천구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02-1566-6688
12	관악구	관악구보건소 신사동 코로나19 건강상담소	02-879-7241	48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 부속목동병원*	02-1666-5000
13	관악구	에이치플러스안지병원*	02-1877-8875	49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953
14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02-450-1937	50	영등포구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2-829-5114
15	광진구	광진구보건소 자양보건지소	02-450-7090	51	영등포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02-1661-7575
16	광진구	건국대학교병원*	02-1588-1533	52	영등포구	성애의료재단성애병원*	02-840-7114
17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02-860-2003	53	영등포구	명지성모병원	02-829-7800
18	구로구	구로구보건소 가리봉동선별진료소*	02-860-2018	54	용산구	용산구보건소*	02-2199-8371~4
19	구로구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구로병원*	02-2626-1114	55	용산구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02-709-9114
20	금천구	금천구보건소*	02-2627-2717	56	은평구	은평구보건소*	02-351-8640
21	금천구	독산보건분소	02-2627-1967	57	은평구	서울특별시립 서북병원*	02-3156-3022
22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02-2116-3300-4	58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02-300-8060
23	노원구	노원을지대학교병원	02-970-8000	59	은평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02-958-2114
24	노원구	인제대학교상계백병원*	02-950-1114	60	종로구	종로구보건소*	02-2148-3557
25	도봉구	도봉구보건소*	02-2091-4483	61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02-2001-2001
26	동대문구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283	62	종로구	서울적십자병원	02-2002-8650
27	동대문구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63	중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02-2270-0114
28	동대문구	삼육 서울병원*	02-1577-3675	64	중구	중구보건소*	02-3396-5181
29	동대문구	서울특별시동부병원	02-920-9118-9	65	중구	중구보건소 명동선별상담소	02-3396-5181
30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02-820-9465	66	중랑구	중랑구보건소*	02-2094-0800
31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대방선별진료소	02-832-9404	67	중랑구	서울의료원*	02-2276-8333
32	동작구	보라매병원*	02-870-2114	68	서초구	서초 소방학교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33	마포구	마포구보건소*	02-3153-9037	69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34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02-330-8726	70	은평구	서울시립은평병원	
35	서대문구	학교법인연세대학교 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02-1599-1004	71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36	서초구	서초구보건소*	02-2155-8093				

* 검체채취 가능

* 출처(3.5)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마이크로페이지(http://www.mohw.go.kr/react/popup_200128_3.html)